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34.70	↓ 코스닥	882.72
	(-1.88)		(-15.32)
↓ 금리 (국고채 9년)	3.853	↑ 환율 (원·달러)	1330.00
	(-0.010)		(+2.20)

尹 대통령
초거대 AI 도약 위해
9090억 마중물
02



“철의 트라이앵글’ 시대, 규범·이익 현명하게 판단을”

尹, 2차 개각 단행

국방 신원식 문체 유인촌 여가 김행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2차 개각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군 복무한 3성장군 출신”이라며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으로,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맞춰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신 후보자는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등을 지냈다.

신 후보자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선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와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 문화예술 현장에서 오래 종사한 분”이라면서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을 수행하며 정책역량도 갖춘 분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케이(K)-컬처의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우리 정부에서 폐지를 할 방침”이라면서도 “후보자는 언론,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경험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갖고 있어 전환기를 맞은 여가부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메트로신문·경제
‘2023 감사 리더스 씨밋’

대내외 불확실성·리스크 이슈 속
전 금융사 감사 40여명 한자리에
윤증현 前장관 ‘감사의 역할’ 강조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 감사(監事)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3 감사 리더스 씨밋(Leaders Summit)’이 열렸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이슈로 부상한 시점에 열린 언론사 최초의 감사 씨밋이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회사 감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리더스 씨밋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3면>

이순우 메트로 언론윤리실천위원장은 “금융회사는 횡령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업종 중 하나다”라며 “사회가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의 임무를 가진 감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찬을 겸한 이날 씨밋에선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대내외 균형이 무너지는 시기여서 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우리는 철의 트라이앵글(Iron triangle) 시대에 살고 있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1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3 감사(監事) 리더스 씨밋’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첫번째 줄 왼쪽부터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대표, 양현근 우리은행 상임감사, 김도인 메트로 언론윤리실천위원장(전 금감원 부원장), 송윤진 신한투자증권 상근감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이순우 메트로 언론윤리실천위원장(전 우리금융 회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류찬우 신한은행 상임감사, 조성래 BNK부산은행 상임감사, 배준석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이옥원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다”며 “감사가 기존의 물(규범)만 지키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또 조직의 이익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의트라이앵글은 이익집단(기득권 세력), 관료, 정치권의 유착구조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익집단(기득권 세력)은 자기를 이익을 추구하고 관료는 퇴직후 자리보전, 정치권은 표와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법안제정은 미루는 사태를 말한다.

그는 평소의 지론대로 경제를 짓누르는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낮은 경제성장률과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화두이자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감사 리더스 씨밋에 참가한 김형남 다올투자증권 상근감사는 “회사의 단순한 감사보다는 한 국가의 경제흐름에서 필요한 감사의 역할을 알 수 있었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이날 감사 리더스 씨밋에서는 윤 전 장관 외에 45명의 은행, 보험, 카드, 증권사 감사가 참석했다.

메트로신문 이장규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능숙한 기수는 말고배를 아주 살짝만 당겨 말이 제 길을 똑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처럼 (회사의) 감사는 보

이든 보이지 않든 조직이 바른 길로, 정 도로 나아가갈 수 있게 한다”면서 “감사는 언론 처럼 견제·비판·감시·적발이 숙명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 감사 리더스 씨밋은 감사의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가 유지되는 협의체적인 포럼이다. 각 회사 감사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명강의’를 직접 만나는 시간이다. 또한 세미나, 탐방 등을 통해 선진 감사시스템 등을 고민할 예정이다. 이날 윤증현 전 장관의 강연에 이어 오는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엠베서더서울호텔에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강연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업무효율 ‘쑥’, 비용 ‘뚝’… 유통가 ‘생성형 AI’ 도입 바람

현대백화점, 네이버 ‘루이스’ 도입
2주 소요 카피, 3~4시간으로 감축

롯데쇼핑, 업스테이지와 손 잡고
신규서비스·유통특화 AI 개발나서

국내 굴직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도입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서다. 특히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유통업계가 AI 활용에 적극적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롯데온 등 유통 관련 업체가 AI를 개발하거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협력에 속력

을 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초 마케팅 문구 제작 등 업무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기반 AI 카피라이팅 시스템 ‘루이스’를 도입했다. 현대백화점은 루이스에 최근 3년간 사용한 광고와 카피, 판촉물에서 사용한 문구 등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뒤 현대백화점 임직원 120명의 테스트를 거쳤다. 그간 기획, 의도, 메시지 등 외주를 거쳐 2주 가량 걸리던 카피가 평균 3~4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롯데쇼핑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롯데쇼핑은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인 업스테이지와 ‘생성형 AI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유통 특화 AI 개발에 나선다. 특히 내부 인프라를 활용해 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업스테이지는 생성형 AI 관련 기술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롯데쇼핑만의 유통, 물류 노하우와 고객 구매 데이터에 업스테이지 기술력을 접목해 AI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업계 특화된 롯데쇼핑만의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롯데온은 올해 6월 업스테이지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개인화된 AI 상품 추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

품 추천 AI 도입 후 롯데온의 구매전환율은 1월에 실시한 테스트에 비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신라는 네이버와 상호 서비스 연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 특히 네이버와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 기반 호텔·면세 사업의 디지털 전환 ▲멤버십 제휴를 통한 온오프라인 고객 혜택 확장 ▲호텔·면세 서비스 사용자 편의 향상 등을 목표로 전략적 사업 제휴를 추진한다.

호텔신라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호텔 및 면세 서비스 사업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정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 민주당,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국제 여론전
/사진 뉴시스

▲ 대법원장·감사원장 ‘공판 의혹’에 권익위 “문제없다”
▲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 “탈원전, 한전 적자 중요 원인”



▲ 美 상무부 부장관 방한… 중·러 수출통제 등 논의
▲ 유병호, 압수수색에 “위법행위자 주장을 그대로”
/사진 뉴시스

“각국 주도권 경쟁 치열… 초거대 AI에 9090억 투입할 것”

尹 대통령, 초거대 AI 도약 회의
“AI 발전, 우수인재 양성에 달려
정부 지원, 투자·도전에 마중물
민간의 투자·도전, AI경쟁 좌우”

윤석열 대통령이 ‘초거대 인공지능(종합적 인지·판단·추론 AI)’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AI·디지털 분야와 AI·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총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재한 자리에서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 AI 영재고등학교, AI 사관학교 및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등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정부의 지원

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와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갖고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프랑스 소르본대학에서 ‘디지털 윤리원칙’을 제시하면서 든 예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AI 규범 정립의 당위성을 자동차 개발 초기의 배기가스 규제, 책임보험 강제 정책에 빗대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배기가스 규제를 할 때 반발이 많았다. 그렇지만 배기가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책임보험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를 쓰는 데 있어서의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과 AI가 남용되고, 생기는 부작용이 인구가 고생해서

축적해 놓은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며 “물론 과도한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남용을 방지하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AI와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G20(주요 20개국)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격납고 둘러보는 김정은·푸틴

김정은(오른쪽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켓 조립 격납고를 둘러보며 얘기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전 적자 원인, 탈원전… 두산도 구조조정”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청문회
“안전 에너지원, 경제성 있게 운영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 갖춰나가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3일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으로 유가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장관에 임명되면 수출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오피스텔 전세금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부인했으나, 자녀 불법 유학과 부모 소득 부당공제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전력의 적자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기요금에 비용을 반영해서 구성돼 손해 보지 않는 구조이면 적자가 나지 않겠지”라고 반문하며 “짜게 책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문정부 때 탈원전하지도 못했다. 원전가동률과 영업적자와 오히려 반비례하는데 전정부 탓을 한다”고 질타하며 재차 묻자 방 후보자는 “(문정부 때) 원전가동률도 줄었고 원전의 신설 갯수도 줄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수출입은행장 시절을 떠올리며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 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가 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

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수출 플러스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 산업부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시급하다.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중동·아세안·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방 후보자의 장녀 전세금 지원, 공무 관련 주식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미제출로 공방이 벌어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주담대 영향… 가계대출 한달새 6.9조 급증

한은, 8월 중 금융시장 동향
주담대 잔액 872.8조, 7조 늘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1000억 ↓

가계대출이 한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증자리론 등을 통해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차주 상환능력과 실소유 여부를 확인해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규모다.

◆8월 주담대 7조원 ↑…당분간 증가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담대가 증가한 영향이다. 주담대 잔액은 872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7조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자금 수요는 둔화했지만, 주택구입 관련 자금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며 “주택을 계약하고, 주담대까지 2~3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5~6월 거래된 수요가 주담대 증가를 이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4월 3만4000호에서 5월 3만7000호, 6월 3만6000호로 증가했다. 수도권 매매거래량도 4월 1만5000호에서 5월 1만6000호, 6월 1만6000호로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마이네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46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윤 차장은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DSR 규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대출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기간 50→40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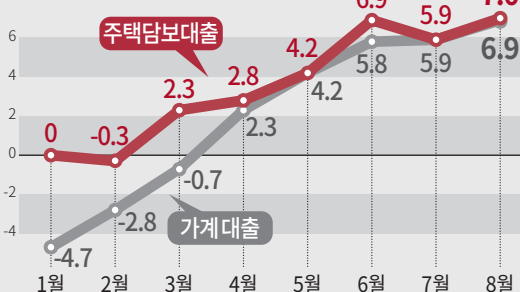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가능성과 실소유 여부에 따라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주담대가 과잉 대출되거나 투기수요로 작용할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만기 기간을 설정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은행가계대출 증가액 추이

단위: 조원, 전월대비



자료/한국은행

/유평이머지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2023 감사 리더스 씨밋'이 열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한국경제, 대내외 복합위기 직면 과감한 개혁 통해 돌파구 찾아야”

기조강연

윤 증 현
윤경제연구소장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 주제 강연
스태그플레이션·파펙트스톰 진단
“민간·정부 저성장 극복 협력 필요”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균형이 무너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과 파펙트스톰(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은 13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감사 리더스 씨밋’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가 2.0%포인트(p) 넘게 벌어진 것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다”며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위기다”라고 말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이날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강연에서 ▲세계 산업사의 흐름 ▲우리경제의 자화상 ▲한국경제의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 위기의 한국 경제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 금리, 환율 소위 말하는 삼고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 원자재 근원 물가와 농작물 근원 물가는 많이 잡혔지만, 원유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한미 간에 금리 격차는 2.0%p나 차이 나는 상황에서 물



13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감사 리더스 씨밋’에서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경기안정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반대로 경기안정을 선택하게 되면 물가안정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5.25~5.50%)과 금리차이가 2%p다.

외국인 투자자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낮아져 투자금을 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상대적으로 절하 압력을 받게 돼 국내 금융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환율 상승은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윤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재정 적자가 너무 심화됐고, 10차례에 가까운 추경을 진행하면서 재정적자는 600조원에서 1000조원까지 뛰었다”며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와 무

역수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 저성장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는 지불 능력이 문제가 되면 외환위기가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 하락도 큰 위기중 하나로 꼽았다.

윤 소장은 “전 산업의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해 올해 연 1.4%가 예상되고 있다”며 “1.4% 성장해서는 우리가 일자리 유지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대통령선거 등 유동성에 홍수가 나면서 국민의식이 추락했다”며 “공동체 의식 소멸과 건전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전환점 기로에 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 물가안정·저성장 탈출 ‘과제’

윤 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저성장에서 탈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입법부, 사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자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1~2% 수준의 성장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전망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며 “한국의 가계부채가 2000조원 가까이 불어난 상황에서 가계부채 비율 역시 주요국 중 GDP 대비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예전 CNN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점 10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인프라 구축과 높은 평균 IQ, 높은 노동시간 대비 낮은 휴식시간 등을 소개했다”며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강점을 살려 현재 처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개혁 결단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지속가능 기업·사회 만드는 암묵지 되길”

개회사

이 장 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금융권 각 회사의 감사와 언론은 비슷한 운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견제·비판·감시·적발이 숙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가깝게 할 수도 그렇다고 멀리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감사와 언론 같아 보입니다.

감사는 회사의 기본 인프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듯 회사도 성장이라는 한 날개와 위험관리라는 또 다른 날개로, 즉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잘 돼야, 회사도 사회도 나라도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암묵지라는 말이 있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안해도, 사람들 대중들이 다 알아서 생각하고 잘 알고 있는 파워·구조·권위 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

니다. 사전에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지만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이라고 나와있네요.

감사님들의 권위도 암묵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나서서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평소에 조심하고 규정과 법을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 존재만으로 회사가 다른 길로 새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람직한 감사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를, 사회를 잘되게 하시는 감사님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업무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자리”

환영사

이 순 우
메트로 언론윤리실천위원장



이순우 메트로 언론윤리실천위원장.

반갑습니다. 특히 평소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던 존경하는 윤증현 장관님 뵙게되어 감사합니다.

금융업이라는 것은 현금이 늘 옆에 있습니다. 이거 뭐 현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는데요. 옛날 얘기입니다.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은행입니다. 최근에 직원 횡령 사고가 났다고 또 그러지만 다른 업종에 비교해보면 근래 들어 적었던 것은 전부 감사님들 덕분입니다. 계신 것만으로도 직원들이 나쁜 맘을 덜 먹고, 못 먹습니다. 감사님들이 계시면 다 이상한 맘을 먹다가도 그만두는 거라 그러지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감사 직무를 하다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규정상 감

사는 견제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경영자(CEO)가 되면 사사건건 감사가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는 CEO 없습니다.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자고만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늘 지점에 제일 잘했던걸 공유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오늘 각기관에서 다 오셨는데 정말 내가 이거는 해보니 좋더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모범경영·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낸 운영방식)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반성 없는 이재명 대표체제… 전면적 개혁·쇄신 필수”



인터뷰 | 이 원 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옥 더불어민주당 의원(60·경기 화성읍·3선)의 말은 날카롭다. 특히, 시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할 때 그의 말은 날이 선다. “미래도, 유능함도, 혁신도, 통합도 없는 민주당이 되었다”, 이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되돌아보며 내린 평가다.



이원옥 의원은 오랜 당직자 생활을 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초들의 뜻을 모아 창당된 열린우리당에서 40개월 동안 당 대표가 11번 바뀌는 것을 지켜봤다. 당의 지도력이 채 100일을 넘기지 못한 채 바뀐 것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진영의 패배를 바라보면서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실패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그는 저서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나무와숲·2011)’에서 일갈한다.

다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김남국 의원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 등 국민이 등을 돌릴 만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민심의 흐름을 민주당이 잡기 위해선 당의 전면적인 개혁과 쇄신이 필수적이라는 이 의원을

지난 11일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보다 내가 먼저여서는 안 돼”

이야기는 자연스레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전국정당화’ 위해 신뢰회복 강조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혁신 없이 변화하는 모습 통해 국민 설득해야”

이원옥 의원은 “이 대표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굉장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언론이나 여론의 동향을 보면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 검찰의 무차별적 공세도 문제지만, 민주당 스스로도 근본적으로 혁신하면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취임 후 극심한 계파 갈등 속에서도 22대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한 마음은 같다고 했다. 다만, 총선 승리에 대한 염원은 같지만,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 만한 자기반성과 혁신은 거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대선에서 졌다. 그럼에도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다. 그러고 나서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인천으로 출마했다. 아주 황당한 모습이 벌어졌다”면서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를 또 졌다. ‘참패’라고 할 만큼 졌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평가와 반성이 없다. 그 후 당 대표 선거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모습들이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당후사보다는 ‘내가 더 먼저’라는 표현 아니겠나”라며 “제가 경험한 당 대표와 지도자들은 항상 선당후사를 외쳤지, 선당후사보다 ‘내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했던 당 대표는 보지 못했다. 그것이 현재 지도부와 기존 지도부의 아주 결정적 차이”라고 부연했다.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과 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정치는 길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진영 간의 싸움을 심화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국무위원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처음 봤다. 최소한, 총리가 의원의 질의를 중간에 끊고 말하는 일은 없었다”며 “국회 전체를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공간이 아니고 싸움의 공간으로 바라봐 무한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한

단적인 장면을 보여준 것이 이번 대정부질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총선에서 25%씩 양당 지지자로 고착이 돼 있다. 총선의 투표율을 보통 60%라고 할 때, 10~15%가 스윙보터(부동층)들이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스윙보터들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며 “양당이 극단적으로 정치투쟁하는 모습에 대해 신물을 느끼는 국민이 굉장히 많아졌다.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한 지지자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반대 당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선 마지막 단계에 누구를 찍을지 설득하지 못하면 선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참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선 정치공학적 시도보다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TK(대구·경북)이나 호남이 어느 순간 변하겠나. 상상하기 어렵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한번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산·울산·경남에서조차 싸웠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등 정치권에서 실패가 나와 다시 실패해서 민주당을 심판했다”며 “신뢰의 정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제일 근간에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해서 사랑받는 정당이 된다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그것보다 더 혁신하고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바른 소리 할 것”

마지막으로 이 의원에게 “원래 불의를 잘 못 참는 성격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은 용기가 없으면 못 한다. 불의를 못 참는다기보다는 그런 용기는 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며 “학생 운동 이후에도 당직자 생활을 할 때,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공개적이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바른 소리를 말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원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트로경제신문’과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는 모습. /손진영 기자 son@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희망부자들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부자이겠지만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들 역시
희망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꿈벌을 지키면서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책을 통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

이런 희망들이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희망부자들을 응원합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첫번째 이야기

K-Bee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밀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갑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b KB 금융그룹**

與野 “허위 인터뷰, 대선공작” vs “채 상병사건, 국정농단”

〈與〉

〈野〉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방전’
전·현직 대통령 거론하며 고성
與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건”
野 “수사 외압, 은폐·조작 밝혀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민배-신학림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공작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열리자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의 회의 진행을 문제 삼자, 김 위원장은 이를 반박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3일 남겨놓고 발표된 ‘김민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에 대해 “이

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선거 직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

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조 의원 발언에 호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거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7월 31일 국방장관이 결재하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며 “그날 아침 대통령실 티타임에서 어떤 보고가 이뤄졌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관 혹은 장관 주변과 통화했는지 여부, 그에 따라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지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에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부의 잘못된 명령 체계에 대해 거부하고 군내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점에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격려라는, 그것 때문에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가정해서 질의했는데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기현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킬 것”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참석
“아동학대특례법 개정 전 선행”
이태규 “학교 현장 바로 세울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법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50만 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앞으로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고 저희 세대는 배워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배워 왔다”며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행정예 시달리고 악성 민

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우리 당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

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학부모, 학생과 함께 선생님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무엇보다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전혜숙 ‘코로나19 극복기’ 북콘서트, 이낙연 등 정치인 총출동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참여해 격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3선)의 13일 북콘서트에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직 국회의원 20명이 이상이 참여해 전 의원을 격려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대양AI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힘내라 대한민국 : 한국 코로나 극복 세계 챔피언’ 북콘서트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극복기 경험을 회상했다.

전 의원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준 백신 제

조사와 의료단체 관계자를 칭찬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총출동 했다.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박광온 원내대표·조정식 사무총장, 서영교·고민정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윤호중·안규백·전해철·정춘숙·송기현·박용진·박홍근·위성곤·최인호·백해련·김주영·윤후덕·이병훈·이해식·홍기원·전용기·도종환·우원식·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전총리는 축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당시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때 제가 위원장을 맡았고 전 의원

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저는 사회나 보는 사람이었는데 전문 지식은 전부 전 의원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코로나19 대응행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전 의원의 지난 저서에도 추천사를 써줬다는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기에서 전 의원의 활약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기록하지 않으면 망각한다. 책을 내는 것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질병으로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을 해놔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尹, 교황청에 강승규 수석 특사 파견

‘韓-교황청 수교 60주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교황청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 특사를 통해 교황청이 해방 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는데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특사는 성 베드로 성당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등 대한민국에 보여

준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교황청과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3시(한국시각 오후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 미사와 축복식이 진행된다.

강 특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교황청을 방문하면서 유홍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면담,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미사와 축복식에 참석하는 등 교황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일정을 수행한다. /박정익 기자

세종대학교

세상 世 으뜸 宗



2023 QS 아시아 대학평가
아시아 TOP 1%

2023 Leiden 세계대학평가
국내 1위

2023 THE 세계대학평가
국내 8위

세종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3. 9. 12.(화) ~ 9. 15(금)

모집전형 학생부교과 : 지역균형, 농어촌학생, 항공시스템공학
학생부종합 : 세종창의인재(면접형, 서류형), 기회균형, 사회기여 및 배려자,
서해5도학생,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국방시스템공학
논술우수자 : 인문계열, 자연계열
실기우수자 : 음악과, 무용과, 영화예술학과
예체능특기자 : 체육학과, 무용과, 영화예술학과



세종대학교

카드 News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왼쪽)과 정갑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유니세프 협업

국내외 아동·청소년 디지털 보호 프로젝트

신한카드가 유니세프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위험을 대비한다.

◆ CDR경영 통해 디지털 양극화 해소

신한카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미래세대 보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국내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학습자료를 지원한다. 지역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어 해외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장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핵심은 '기업의 디지털 책임 경영(CDR)'이다. CDR은 디지털 사업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의미한다.

비씨카드, 은퇴자 소비 패턴 분석

60대 이상 소비 상승
여행 업종 최다 결제

비씨카드가 은퇴자의 노후생활 소비 패턴을 분석했다.

◆ 결제액 상위 업종은 '여행'

비씨카드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액티브 시니어는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 60대 이상의 소비흐름 분석결과 고객수와 결제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60세 이상의 고객수와 결제액은 2018년 동월 대비 각각 7.3% 포인트(p), 8.5%p 상승했다.

결제액 증가율 상위 업종은 '여행' 분야였다.

KB국민, 추석 앞두고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KB국민카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오프라인에서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 선물세트 구매하면 추가 할인

KB국민카드는 이마트, 쿠팡 등 주요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함께 다양한 연휴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프라인에서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2~3개월 무이자 할부와 함께 KB페이를 활용하면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온라인 가맹점에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20%를 할인한다. 할인 한도는 최대 20만원까지다. /김정산 기자

‘오락가락’ 대출규제에 시장·차주만 혼란 가중

정부, DSR 완화 대안 ‘만기 연장’
가계부채 증가로 정책상품 제지
일부 은행 만기·나이 제한 도입
“현재상황 해명·대책 내놓아야”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등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대출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출시 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의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현재는 '대출증가 주범'으로 지목된다. 갑작스런 금융당국의 브레이크에 대출을 받으려던 대출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조5912억원 늘었다. 지난 6월(6332억원)과 7월(9755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은 감소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이 514조9997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조1122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의 75% 수준이다. 5대은행은 7월 초부터



고객들이 주담대 상담을 위해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 /뉴시스

8월 중순까지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 바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7월말 8000억원대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만 2조원 넘게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원인으로 50년 주담대를 지목한 이후 제재를 가할 것이라 이야기가 나오자 지난달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DSR 규제 완화 대신 '주담대 만기 연장' 카드를 꺼내면서 만기를 늘린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40년 만기 주담대를 처음 선보였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초엔 SC제일은행과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계부채는 급증, 결국 금융당국은 DSR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지목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들자 농협은행은 지난달 31일 판매를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줄인다. 신한은행은 34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뒀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당국의 입장과 발맞출 것으

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애초에 DSR 우회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인데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잘못된 상품이라는 오명으로 일종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50년 주담대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사람들은 4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나이제한을 도입하면서 일부 은행에서 40대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수 없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나이와 만기를 관련지어 젊은 층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를 극복하고자 나온 대안은 40·50년 만기 주담대인데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정책상품을 제지하면 결국 정부가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과 차주에 혼선을 주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해명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신한은행, '연금 입금 알림 서비스' 제공

신한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 대상
서비스 신청시 미니보험 가입 혜택

신한은행이 신한은행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입금 알림 서비스'를 출시한다.

신한은행은 13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4대 공적연금), 보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입금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금 입금 알림 서비스'는 신한 솔(SOL) 또는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타 금융사를 통해 연금을 받고 있는 고객은 솔(SOL) '연금라운지' 또는 영업점에서 신한은행으로 연금 입금계좌를 변경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4대 공적연금, 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연금 입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응모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매월 추첨을 통해 ▲신한라이프 신한독감케어건강보험(무배당) 100명 ▲신한라이프 신한대중교통보장보험(무배당) 300명 ▲신한EZ손해보험 신한레저보험 100명 등 총 2000명에게 미니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미니보험 보장기간은 독감보험 5년, 대중교통보험 3년, 레저보험 1년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금수급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예보, '파산배당금' 모바일 안내 실시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 2.1만명

예금보험공사가 파산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에게 모바일 문자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예금자를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5000만원 미만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지만, 5000만원 이상은 예금자 보호가 불가하다. 5000만원 이상 예금시, 파산저축은행의 자산을 매각한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배당금을 받지 않은 예금자는

약 2만1000명으로 1만원 미만 소액은 47.7%, 10만원 이상은 16.5%다.

예금보험공사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24시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해 다시한번 안내한다.

파산배당금은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지급신청도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파산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파산배당금 등 미수령금을 찾아가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서금원, 청년층 위한 '청년금융아카데미'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층대상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금융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금융아카데미는 올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등을 활용해 청년들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금원은 금융아카데미에 경제·금융 유튜브 슈카와 김동엽 미래에셋 상무를 초빙해 자산관리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청년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재무관련 고민에 대한 일문일답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아카데미 시작에 앞서 서민금융홍보부스에서 청년도약계좌, 햇살론유스 등 서금원의 청년·대학생 맞춤형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서민금융 관련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는 26일 속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청년금융아카데미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인 300명이 넘으면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재원 서금원장은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일수록 초기에 개인 재무관리 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 등 맞춤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도적으로 재무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 금리 차등 인상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3.5%

케이뱅크가 '코드K정기예금(12개월 이상)' 금리를 연 4%로 인상한다.

케이뱅크는 13일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이라면 금리는 4%다. 기존 3.8%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연 3.3%에서 연 3.5%로 인상하고,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연 3.9% 금리를 제공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가입금액 제한은 없다.

케이뱅크관계자는 "코드K정기예금을 2주전에 가입한 고객은 금리보장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큰 금리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USB-C 충전·티타늄 바디’ 채택… 전 모델 가격 동결

‘다이내믹 아일랜드’ 전체 적용
프로맥스 256GB 모델 1199달러
韓 3차 출시국 전망… 일정 미정

“아이폰15는 지금까지 제품 중 가장 혁신적으로 강력한 스마트폰이라고 확신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아이폰15 공개 행사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팀 쿡 CEO가 말한 ‘혁신’ 보다 주목받은 것은 여전한 ‘급나누기’와 ‘가격 동결’이었다.

◆기본·플러스·프로·프로맥스 4종

애플의 이번 아이폰15 시리즈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6.1인치형(15.4cm) 기본 모델 ▲6.7인치형(17.0cm) 플러스 모델 ▲6.1인치형 프로 모델 ▲6.7인치형 프로맥스 모델 등 총 4종으로 출시됐으며, 새로운 최상위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졌던 ‘울트라맥스 모델’은 나오지 않았다. 색상은 핑크, 옐로, 그린, 블루, 블랙 다섯 가지로 구성됐다.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상단이 움푹 파여 ‘M자 탈모’를 연상하게 하는 ‘노치 디자인’ 대신 전 모델에 ‘다이내믹 아일랜드(Dynamic Island)’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전작인 아이폰14에서는 프로 모델에서만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물리 버튼이었던 음소거 스위치를 ‘동작 버튼’으로 대체했다. 동작 버튼을 활용하면 카메라·손전등을 켜거나 음성 메모, 집중 모드, 번역, 확대기와 같은 기능들을 단축키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애



팀 쿡 애플 CEO가 1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 ‘원더리스트’ 무대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플이 ‘라이트닝 포트’ 대신 이번 신제품부터 ‘USB-C’ 타입 충전 단자를 전 기종에 채택한 부분이다. 애플은 “USB-C가 표준 모델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USB-C를 의무화하도록 한 영향이 크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소비자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라이트닝 포트·케이블은 아이폰을 비롯해 일부 애플 제품에서만 사용되었던지라 삼성전자 비롯한 다른 전자제품과 호환해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전 모델이 맥세이프 무선 충전을 지원하며 추후 Qi2 무선 충전기도 지원할 예정이다.

◆‘급나누기’ 전략 여전

그간 업계에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애플이 아이폰15를 시리즈 가격을 100달러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해당 예측은 애플은 전 모델의 가격을 동결하면서 완전히 빗나



1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 ‘원더리스트’가 열려 아이폰15 프로가 소개되고 있다. /뉴시스

갔다. 애플은 ▲기본 모델 799달러(128GB)~ ▲플러스 899달러(128GB)~ ▲프로 999달러(128GB)~ ▲프로맥스 1199달러(256GB)~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아이폰14와 같은 가격대다.

다만 최고급 모델인 프로맥스는 128기가바이트(GB) 용량을 없애고 256GB부터 출시해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꾀하는 전략을 택했다.

애플은 아이폰14프로와 프로맥스에만 들어간 A16 바이오닉 칩을 아이폰15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 넣으며 성능을 높였지만 ‘급나누기’ 전략은 이어갔다. 아이폰15 프로에는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AP인 A17 프로 반도체를 탑재했다. A17프로는 3나노미터(1nm·10억분의 1m) 공정 기반으로 만든 애플의 최초 칩으로 저전력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프로와 프로맥스에만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를 티타늄으로 변경하며 기기 무게를 덜어

내며 내구성을 강화했다.

애플은 “우주선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이 프리미엄 합금은 어느 금속에 견주어도 가장 높은 ‘비강도’를 자랑한다”며 “이로써 애플 사상 가장 가벼운

라인업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기본 모델에는 4800만화소 메인 카메라를 장착했지만, 15프로에는 3배줌을, 15프로맥스에는 120mm 초점거리의 5배 광학줌을 채택해 카메라 성능을 끌어 올렸다.

◆“그래서, 한국 출시는 언제?”

이번에도 한국은 1·2차 출시국에서 빠졌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등 4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의 고객은 15일 오전 5시(태평양 표준시)부터 아이폰15시리즈를 사전 주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 판매는 22일 금요일부터 시작된다.

2차 출시국으로는 마카오,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베트남 및 기타 17개 국가 및 지역 등이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한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3차 출시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출시일은 미정인 상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아이폰15와 아이폰15 Plus는 블랙 블루 그린 옐로 핑크 색상으로 출시된다. /애플

사라진 ‘프로맥스 128GB’ 모델 프리미엄 ‘급 나누기’ 전략 뚜렷

특정 모델 강요로 가격인상 효과
시장 평가 냉혹… “혁신 없어”

애플은 아이폰15를 공개하며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한 스마트폰’이라고 자신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다. 이번 아이폰15에서는 기술 혁신 대신 애플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해결을 위한 방책만이 라인업에서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평가다. 길어진 스마트폰 교

체주기에 대항하기 위한 프로맥스 모델의 재편이 그것이다.

애플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스티브 잡스홀에서 신제품 발표회 ‘원더리스트’에서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했다. 애플은 이번 15시리즈 가격을 동결했으나 특정 모델을 없앴으로써 가격 인상 효과를 유도했다. ▲기본 모델 799달러(128GB)~ ▲플러스 899달러(128GB)~ ▲프로 999달러(128GB)~ ▲프로맥스 1199달러(256GB)~ 로 책정했다. 대신 프로맥스 128Gb 모델을 없앴다. 수요도가 높은 미니와 새롭게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 ‘울트라’는 이번 라인업에 들지 못했다.

지난 8월 미국시장조사기관 옴니아의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14 프로맥스는 올 상반기 2650만대 판매고를 올려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아이폰14 프로로 2100만대, 3위는 아이폰14 기본 모델 1650만대 순이었다. 최고가 모델을 최저가 모델보다 1000만 대 더 팔았다. 애플은 2018년부터 기본 모델에 프리미엄 모델을 추가

하는 전략을 썼다.

아이폰XS부터 대형 모델인 플러스를 맥스로 바꾸고 고성능화 했다, 다음해 아이폰11에서 기본 모델에 맥스의 이름을 다시 바꿔 프로, 프로맥스 라인업을 냈고 지난해 기본모델에 대형화면을 더한 플러스를 추가했다. 2020년, 2021년 2년 간 미니 모델을 추가하고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지난해부터 내지 않고 있다. 기본 모델에서 기능을 축소한 저가형 모델을 내지 않고 대신 기능을 추가한 고가형 모델만 시장에 선보이며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프리미엄화는 가속화하는 추세지만 동시에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이다. 프리미엄화 한 스마트폰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고객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장기화함으로써 전체 시장 수요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프리미엄화가 시작한 2018년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30개월을 넘어섰고 급기야 올해는 43개월을 기록했다.



애플 스마트폰 시리즈 아이폰15가 출시된 13일 서울 중구의 한 현대전화 대리점 앞에 아이폰15 사전예약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스마트폰 마켓 아웃룩’ 보고서에서 올해 교체 주기를 43개월로 예상하고 경기 회복 후에도 40개월 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의 중고시장 성장도 악재 아닌 악재다. 서비스 매출에는 기여해도 기기 판매 매출에선 부정적인 요소다. 삼성증권은 지난 2분기 글로벌 아이폰 중고 시장을 약 1.3억대 수준으로 추정하고 이 중 6000만대가 3년 사이 추가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마트폰 수요가 2년간 2억 대 줄어든 상황에서 이 중 높은 비중은 중고시장으로 편입한 것이다.

프리미엄 시장의 또다른 문제점은 수요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프리미엄 모델에 대한 수요

는 등락이 심한데, 전체 출하량의 15~25% 수준에서 머문다. 많은 보고서가 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모델 시장에서 아이폰이 현재 75%를 상회한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지만 길어진 교체 주기와 중고 시장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기기 매출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날 애플은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하고도 뉴욕증시에서 장 내 반등을 못한 채 1.71% 하락한 채 마감했다. 아이폰15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이 PC를 능가하는 기능을 보유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기기 구매를 유도할 만큼 혁신적인 기능과 요인은 없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반등에 실패했다.

/김서현기자 seoh@



USB-C를 채택한 아이폰15 시리즈 /애플

청소차·탱크에 공급망까지… 수소산업 선점 경쟁 한눈에

현장르포

‘H2 MEET 2023’

현대차그룹, 수소전기트럭 청소차 코오롱그룹, 안전한 상용 수소탱크 한화 계열사, 청정수소 통합 공급망 포스코홀딩스, 오만 프로젝트 공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공극의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 ‘수소.’

수소 에너지는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 측면에서 수소 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 2023’은 첫날부터 관계자와 관람객들로 붐볐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수소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박람회 현장에 들어서자 한 트럭이 넓은 공간을 장식해 눈에 띄었다. 이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 2023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부스를 보고 있다. /차현정 기자

트럭은 현대차그룹이 현재 추진 중인 수소전기트럭 청소차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수소전기트럭 청소차는 압축 중계차로 쓰레기를 담은 뒤 압축을 해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수소로 구동돼 소음과 진동이 없어 한밤중에 이용할 때도 용이하다. 이는 디젤 연료를 사용한 청소차의 단점인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여 작업자에게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트럭 내부에 설치된 수소 탱크는 다양한 충

돌 테스트, 압축 테스트, 건파이어 테스트, 화염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입증했다.

코오롱그룹은 일반 금속탱크와는 다르게 겹이 실에 감겨진 상용 수소탱크를 공개했다. 이 실은 탄소 섬유인 카본 파이버가 들어가 있으며 화학물질에 폭시를 적신 것이다. 실로 감긴 탱크는 충격이 가해져도 찢어지는 타입이라 폭발 위험이 없다. 만약 찢어진다면 하더라도 수소는 빠르게 기화해 문제 없이 사용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청소차(위)와 코오롱그룹 상용 수소탱크.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속에 비해 가벼운 것이 장점이다.

한화그룹은(주)한화, 한화에너지,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임팩트, 한화파워시스템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해 청정수소를 생산·저장·운송해 수소발전소와 수소연료전지까지 활용하는 통합 공급망을 선보였다.

(주)한화, 한화에너지, 한화솔루션, 한화임팩트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수전해 기술을 전시한다.

한화솔루션은 수소를 안정적으로 저장·운송하기 위한 고압 탱크를 공개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적용할 수 있는 100킬로와트(kW)급 경량형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한 3000톤 급 잠수함 모형을 각각 배치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만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모델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암모니아 합성 플랜트, E-Fuel 생산, HBI 플랜트 등의 모델을 전시해 구체적인 시각적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오만 프로젝트의 부지는 서울시의 반 정도 되는 면적을 차지하는 규모로 한국과 같이 부지 부족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광활한 부지를 확보한 것은 큰 장점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현재는 예상만큼 신재생 에너지원이 풍부하지를 측량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4년 정도의 측량을 거쳐 구체화한 뒤 수전의 기술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9부능선 넘는 현대차 임단협… ‘정년연장’이 최대 관전

줄다리기 협상 끝 잠정 합의안 도출 보수인상·정년연장 등 입장차 여전 18일 노조원, 합의안 찬반투표 주목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9부능선을 넘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늘부터 이틀간 4시간 부분과업을 예고했으나 지난 12일 밤 막바지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 내용은 기본급 4.8% 인상(11만1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급 300%+800만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념 특별격려금 250만원, 2023년 하반기 생산·품

질·안전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및 2023년 단체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금 15주와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다. 또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 현장 기술직 신규채용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024년 추가 500명, 2025년 300명의 기술직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사는 첨단 대형 다이캐스팅 차체 제조 공법인 ‘하이퍼 캐스팅’ 기술 내재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기존 엔진과 변속기 공장의 유휴부지 등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제조경쟁력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 하이퍼 캐스팅 기술을 2026년 양산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현대차 노조가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및 현실화 ▲만64세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안심하긴 이르다. 특히 이번 임단협에서 핵심 쟁점인 정년연장에 대해선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만 64세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현재 현대차 정년은 만 60세다.

여기에 현대차 임원과 직원의 보수 인상률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 등기이사 1인당 평균보수는 지난해 6억6100만원에서 올해 9억1400만원으로 38.28% 증가했다. 미등기 임원도 지난해 11.72% 오르는 등 최근 2년간 대거 인상됐다. 반면 직원들

의 평균 급여는 지난해 상반기 4300만원에서 올해 4500만원으로 4.65%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에서 갈등을 빚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142조527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1.2%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조8198억원으로 47% 늘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0년 새 회계 기준(IFRS)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인 2조 4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오는 18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노조원의 찬반투표 결과가 중요하다. 찬반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올해 임단협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양성운 기자 ysw@



‘LG 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아뜰레’ 팝업스토어에 전시된 ‘힐링미 아뜰레’의 모습. /LG전자

LG ‘힐링미 아뜰레’ 체험 팝업스토어 오픈

LG전자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카페 ‘알베르’와 레스토랑 ‘스케줄점점’에서 안마의자 ‘LG 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아뜰레’를 체험하는 팝업스토어를 연다.

/김서현 기자

인텔

대역폭 2배 높은 썬더볼트 5 시연

고성능 인터페이스 썬더볼트가 5세대로 업그레이드된다.

인텔은 썬더볼트5를 발표하고 시연했다고 13일 밝혔다. 썬더볼트는 인텔이 주도해 개발한 입출력 규격이다. USB보다 빨라 그래픽카드 등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PCIe 기반 주변 기기도 외장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썬더볼트5는 이전보다 2배 높은 초당 80Gbps 양방향 대역폭을 지원하고, 최대 120Gbps까지 높일 수 있다. USB4.2.0 등 표준으로 설계해 이전 버전과도 호환된다.

/김재용 기자 juk@

한화에어로, 전투기 엔진 핵심소재 국산화 나선다

497억 국방 R&D 과제 우협 선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의 국산화를 위한 핵심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외 수입과 기술이전 제약이 큰 유·무인전투기 엔진을 소재부터 국산화해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기용 ‘TIT 1800 K급 터보팬 항공엔진 저압터빈 내열합금 및 코팅 기술’ 개발 과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2029년까지 497억원의 예산이 투입



되는 이번 과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스코, 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연구개발(R&D)을 주관하며 ▲3D프린팅 ▲일정한 방향의 결정체로 응고해 강성을 높여주는 ‘일방향응고 정밀주조’ ▲내열코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섭씨 1500도까지 상승하는 항공엔

진 초고온부에 사용할 내열합금을 개발할 예정이다.

무인 전투기 엔진 개발 역량을 확보하면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 뿐만 아니라 확보한 기술과 노하우를 유인 전투기의 ‘첨단 엔진’을 비롯해 민수용 항공엔진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

사우디 등 신흥시장서 건설장비 131대 수주

HD현대의 건설기계 계열사인HD현대인프라코어가 건설장비 사업을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대형 고객사들과 디벨론(DEVELON) 굴착기·휠로더 131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계약한 장비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옴시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53톤 대형 굴착기 30대와 대형 휠로더 50대 등 총 80대다. 현지 건설업체인 알 나자즈와 네즈마 파트너즈를 통해 공급된다.

/양성운 기자



탤런트 이 경영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AMAS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삽인삽/한평삽/무점포

맞춤깔창의 대중화 선언

극소자본 창업

AMAS장비 무상지원

1년 무상 리폼을 통한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쭈욱~쑥

어린이성장깔창

10분 만에 측정하고 제작을 완성하는
초간편! 초저가! 최고의 가성비!



제2의 심장
발

세상 사람들의 발 아치(족궁)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깔창을 신고 있습니다.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8230538136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종목만 갈아탄 ‘빚투’ 여전… 신용융자잔고 20兆 유지돼

〈빚내서 투자〉

2차전지주서 로봇·정치주 종목 변경
개인 투자자들 테마주 빚투 반복
“대규모 투자 손실 이어질 수도”

금융당국의 ‘빚투(빚내서 투자)’ 경 고로 잠시 주춤했던 신용거래융자 잔 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2차전지주 에서 로봇·정치주로 종목만 갈아탔을 뿐 개인 투자자들의 테마주 빚투는 반 복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신용융자잔액은 20조4445억원으로 지 난달 17일(20조5572억원)과 비슷한 수 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의 빚 투 경고와 함께 증권사들이 과열 종목 들에 대한 신규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지난달 24일 20조197 억까지 내려갔었지만 곧바로 원상복귀 된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건 2차전지 테마주이다. 이후 초전도 체 테마주 등이 반짝 빛을 본 뒤 현재 는 로봇·정치 테마주가 주목받고 있 다. 시장에서는 개미(개인 투자자)들 의 테마주 투자 과열을 우려하고 있지 만 새로운 테마주가 등장할 때마다 종 목만 변경된 채 빚투 열기는 유지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코로나 19 당시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연간 기본 수익이 높아졌 고,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며 “그러한 기대 수익률을 만족시키기 위



/유투이미지

해서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 방식보다 는 단기적·투기적 거래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테마주 빚투 현상이 일어 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테 마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개미들의 빚투 시도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달에만 주가가 24.7% 오른 로봇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신용융자잔고 는 지난달 1일 493만682주에서 지난달 말 641만866주로 올랐다. 다만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 12일에는 7.86% 급락하며 다시 400만주대로 내려 왔다. 또 다른 로봇주인 뉴로메카는 지 난달 1일 38만7327주에서 12일 52만 9956주로 증가했다. 로봇 관련주인 에스피지 역시 128만3968주에서 164만 3525주로 올랐다.

두산로보틱스도 올해 기업공개(IP O) 최대어이자, 미래 로봇 대장주로 주 목되는 만큼 두산의 주가도 쑥쑥거리 고 있다. 최근 하락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11일에는 무려 27.6%가 올랐다. 기대감이 반영됨에 따라 신용 융자 잔고도 동일 기간 22만2964주에 서 29만9389주까지 늘었다.

유승준 유화증권 연구원은 “협동로 봇은 현재 로봇시장 내 침투율이 4% 수 준에 불과한데 2030년까지 28%로 빠르 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용 로봇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라고 설명했다. 협동로봇의 경우 사람 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는 만큼 삼성, 한화, 두산 등 대 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로봇을 국가첨단산업 육성분야 에 포함하는 호재도 힘을 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의 반등도 심상치 않다. 흔히 ‘한동훈 테 마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노을은 이달에만 127.2% 급등했다. 신용융자 잔고도 이달 1일 7만9679주에서 11일 11만1327주까지 39.7% 늘었다. 다만 11일 주가가 26% 급락하면서 12일에는 4만3310주가 상환됐다. 이외 태양 금속(146.3%), 오파스넷(37.5%), 부 방(48.2%) 등도 지난달부터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했다.

황 연구원은 “테마주의 주가 상승이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기존 주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주가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급락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반대매매들이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 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2023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부문 “동반성장, 함께 멀리 가자”

2023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2일 서울 중 구더플라자호텔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2023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건설부문 김승 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43 개 우수 협력사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기술 혁신과 품질향상, 안전관리 등 분야에서 노력해온 협력사들을 격려하고 동 반성장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2002년부터 우수협력사간담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 자리에서 토목, 건축, 플랜트,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했던 43개 협력사 들을 선정해 2023년도 우수협력사 시

상식을 진행했다. 토목, 건축, 기전, 구 매, 안전환경 분야 총 6개 최우수협력 사 및 37개 우수협력사에게 직접 시상 했다. 이날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자 금 대여, 입찰기회 확대, 이행보증금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는 “협력 사와의 동반성장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면서 “함께 노력 해 온 협력사 분들께 감사하며 동반 성 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우수협력사로 선정된 서광강건 흥경식 대표는 “근래 강조되고있는 ES G 경영 관련 컨설팅 지원과 생생펀드 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자금 지원제도 등에 대한 협력사들의 만족도가 높다” 며 “최근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 려운 시기지만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 탕으로 굳건한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증권주, 3분기 실적개선 기대에 ‘상승세’

테마주 열풍으로 거래대금 늘어나
KRX증권지수, 한 달간 3.01% ↑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27조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부진한 흐름 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주가상 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테마주 열풍으 로 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나 증권사들이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어 주가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 개 국내 주요 증권사들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최근 한 달간 3.01% 상승했

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41% 감 소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개별 종목의 상승 흐름도 나쁘지 않 다. 삼성증권(6.09%), 키움증권 (5.86%), 한국금융지주(4.83%), 미래 에셋증권(1.47%) 등이 크게 올랐다.

이차전지부터 시작한 테마주 열풍 으로 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나 증권사 들이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 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조174억원으로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거래대금은 7월에 비해 감소했으나 지 난해보다는 증가한 상태다. 지난달 국 내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은 22조9480 억원으로 전년 동월(14조2636억원) 대 비 크게 늘었다. 이달에도 20조8573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13조8920 억원) 대비 7조원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3분기 영업이 익 전망치도 높아졌다. 키움증권의 3 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2072억원으로 한 달 전(1837억원)에 비해 약 12.8% 늘었다.

/원관희 기자 wkh@

청약시장 양극화… 서울·지방 대도시 ‘강세’

경기도 외곽지역 성적 저조

지난 8월 아파트 청약시장은 서울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중소형 건설사 브랜드와 서울에서 떨어진 경 기도 외곽지역 분양 성적은 저조한 결 과를 보여, ‘아파트 청약 양극화’ 현상 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직방은 ‘2023년 8월 청약결과’ 자료를 통해 8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대전 68.7대 1, 서울 53.9대 1, 전남 5.6대 1, 광주 3.9대 1, 전 북 2.7대 1, 경기 0.8대 1, 제주 0.2대 1, 경남 0.1대 1 순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3대 1 로 7월 14.8대 1에 비해 상승했다. 서울 의 경쟁률은 전월 대비 낮아졌지만 대 전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특 히 청약미달률은 1순위 기준 7월 17.3%에서 8월 26.6%로 상승하면서 청약 흥행단지와 실패단지의 양극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현상이 뚜렷했다.

8월 1순위 청약미달률은 서울, 대 전, 전남이 0%, 광주 10.2%, 전북 13.3%, 경기 76.9%, 순으로 조사됐다.

/채윤정 기자

금감원, 감사업무 선진화·청렴도 제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상호협력 맞춘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대학교병원 과 감사업무 선진화 및 반부패·청렴업 무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감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의 상호발 전을 도모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청렴 도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향 후 내부통제 강화전략 공유, 반부패·

청렴 관련 우수정책 벤치마킹, 감사기 법 공유 및 관련 실무회의 운영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김기영 감사는 “이번 협약식 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감사 및 반부패· 청렴 업무 품질이 제고되기를 기대한 다”며 “금감원이 청렴 우수기관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 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단일매장 국내 첫 ‘3조 클럽’ 기대 신세계百貨 강남, 마케팅·투자 총력

작년 연매출 2조8398억 기록
하루 유동인구 120만명 ‘대표상권’

업계별 ‘3조 매출’ 평가 엇갈려
금융 “경기불황 장기화에 악영향”
유통 “소비활기, 올해 가능할 수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2019년 매출 첫 2조원을 넘어 이르면 올해 3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2조원 대를 유지했다는 게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강남점은 개점 10년만인 2010년에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9년에는 첫 2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지난해 매출은 2조839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5년째 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성과다.

신세계 강남점은 일일 유동인구가 약 120만명에 육박하고 강남대로까지 연결되는 강남의 대표 상권이다. 또 교통 요충지뿐만 아니라 강남 부촌이 근처에 있어서 일반 고객과 VIP고객 모두를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이를 통해 고정 수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세계 백화점이 이같은 기조를 이어가 이르면 올해에 3조원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한 업계별 예측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금융업계는 국내의 경기불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전경

/신세계백화점

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허리를 졸라매는 가계가 늘고 있어 2조원대를 유지하거나 소폭 줄어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유통업계는 코로나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백화점 업계 최초로 ‘단일 매장 매출 3조원’ 돌파를 이르면 올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 산자부의 지난 4월 백화점 매출 신장률은 2.5%로 조사됐다. 같은 수치라면 올해 3조원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매출 2조8398억원에서 약 5.6%인 1600억원 이상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하나증권은 지난 5월 경, 백화점 기종점들의 성장률을 -1% 내외로 추산하기도 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백화점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런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소비심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소비가 활기를 띠고 있다. 업계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신세계는 오히려 올해 마케팅과 전략에 과감히 투자하고 나섰다. 이는 3조원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신세계의 거침없는 행보에 한가위와 연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해 중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3조원을 거뜬하게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는 강남점을 리뉴얼하면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리뉴얼을 통해 소비자들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신세계 강남점은 새로운 스트릿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켜 강남점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MZ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영패션 매장도 새롭게 리뉴얼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현대글로벌비스, 美서 해운 경쟁력 알린다

26일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참가
참가 화주에 영업 네트워크 구축 추진

현대글로벌비스가 북미 최대 벌크 화물 산업 전시회에서 글로벌 해운사업 경쟁력 알리기에 나선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3’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산업 및 발전 설비, 자동차, 철강 제품, 건설 및 광산 장비 등 대형 중량 화물을 말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북미 최대 벌크 화물 산업 전시회인 BBA에 참여하고 신규 화주 발굴 등 적극적인 영업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은 물론, 중장비, 철도 등 해상 운송 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프로젝트 화물 화주 기업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BBA에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참가한 화주들



현대글로벌비스 자동차운반선(PCTC) ‘글로벌비스 센추리’호

대상으로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브레이크 벌크 수주 실적도 내세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운송 의뢰를 받아 자동차선에 화력·풍력 발전설비를 실어 미국 볼티모어, 독일 브레머하펜 등지로 성공적으로 나르며 브레이크 벌크 화물 운송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전시회를 발판 삼아 미국 내륙운송 물류사, 포워더들 과도 파트너십을 갖춰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씨티은행-제이피모간 제재는 정당”

입찰담합 패소 공정위 승소취지 파기
대법원, 사건 서울고법원 환송 판결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제이스은행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제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와프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환송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각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들을 적발해 지난 2020년 3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그해 5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원심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이 사건 통화스와프 거래를 하기 위해 입찰을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은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돼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취업자수 27만명 ↑... 29세 이하는 내림세

통계청, 지난달 총 2867.8만명
보건업 4.9%, 숙박업 5.5% 늘고
도소매업·제조업·건설업 등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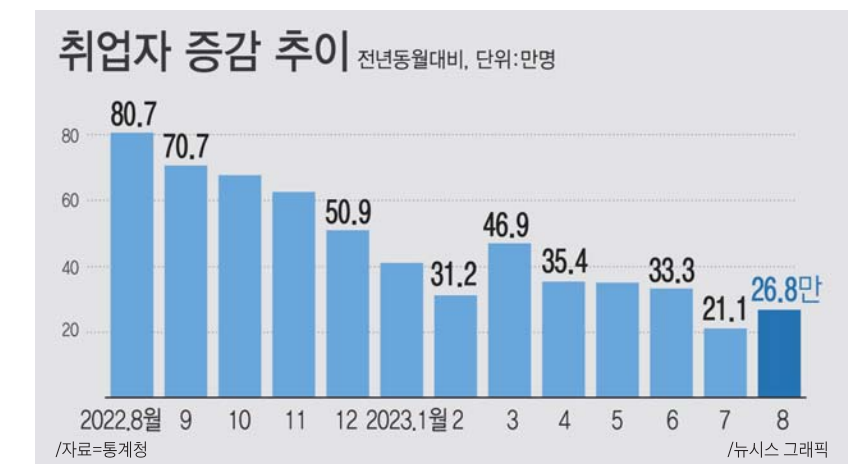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27만 명 이상 늘어나 5개월 만에 증가 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 고용 부진은 지속됐다. 또 29세 이하 및 40대 취업자 수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올해 4월(35만4000명)과 5월(35만1000명), 6월(33만3000), 7월(21만1000명) 등 4개월 연속 둔화한 바 있다. 8월에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7월에 집중호우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가 회복되면서 8월에 반등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더 반등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3만8000명(4.9%), 숙박 및 음식점



업이 12만1000명(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5만7000명(4.4%) 늘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6만9000명)과 제조업(-6만9000명), 농림어업(-1만9000명), 건설업(-1000명)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은 8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냈다.

서 국장은 “분야별로 제조업 부문 증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에는 감소 폭이 좀더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등 여러 현장에서의 문제들로 수주 부문도 건설 쪽에서 조금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이상에서 30만4000명 증가했다. 또 50대가 7만3000명, 30대가 6만4000명 늘었다. 반면 29세이하는 10만3000명, 40대 6만9000명 줄었다.

29세이하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0개월과 1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 중이다. 이로써 60대이상을 제외한 전체 취업자 수는 3만6000명 감소했다.

남성 취업자는 160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0.1%)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여성은 1260만5000명으로 28만1000명(2.3%)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외국인 거래 농지 23% 불법행위 의심

농식품부, 총 138필지 적발

최근 6년 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농지를 조사한 결과, 22.9%가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2022년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농지 관련 490건(709필지)을 농식품부가 넘겨받아 현재 외국인 소유 추정 농지 총 604필지를 대상으로 4개월간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2%)필지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이뤄지거나 정상적인 농지임대 등으로 적용 이용 중이었다.

하지만,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무단으로 휴경한 농지가 59필지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소비자원 ‘고분자 흡수체’ 빼도 생리대 흡수성능 ‘양호’

소비자선호 10개 제품 시험 결과
흡수시간·역류량 등 유사 수준
부착·제거 용이성 등 제품별 차이

여성 생리대에 많이 사용되는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도 흡수 성능이 양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흡수시간과 역류량 등 흡수성능이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생리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13일 밝혔다.

고분자 흡수체(SAP, Super Absorbent Polymer)는 자기 무게의 수십 배가 넘는 물을 흡수할 수 있 합성 물질로, 높은 흡수력이 필요한 기저귀나 제습제 등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생리대의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높아지면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도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제품의 흡수성능, 소비자 만족도, 안전성, 환경성 등을 조사한 결과 흡수시간, 역류량 등 흡수성능은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생리대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원이 조사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는 ‘건강한 순수한면(깨끗한나라)’, ‘내추럴코튼 리올가닉(내추럴코리아)’, ‘본네이처(제이투엘에프에이)’, ‘시크릿데이 포네이처

(중원주식회사)’, ‘썬피유기능 100% 순면커버(엘지유니참주식회사)’, ‘좋은느낌 유기능 순면커버 내추럴코어 울트라슬림(유한킴벌리)’, ‘템포 내추럴순면패드(동아제약)’,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주식회사에스이씨코리아)’, ‘라네이처 시그니처 울트라슬림(유한킴벌리)’, ‘라엘 센서티브(라엘코리아)’ 등 10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 1000명에게 설문 조사 한 결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상위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흡수시간은 ‘템포 내추럴 순면패드’ 제품이 3mL, 5mL 조건 모두 가장 빨랐다. 역류량은 ‘썬피유기능 100% 순면커버’, ‘나트라케어 울트라패드’, ‘라엘 센서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리혈이 생리대 표면에 닿는 순간 빠르게 흡수하는지 확인하는 순간 흡수는 시험대상 10개 제품 중 ‘좋은느낌 유기능 순면커버 내추럴코어 울트라슬림’ 제품을 뺀 9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내추럴코튼 리올가닉’, ‘템포 내추럴순면패드’, ‘라엘 센서티브’ 3개 제품의 경우 통기성 방수층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리대를 써멀마네킨(사람 체온과 유사한 35℃를 유지하는 특수 마

네킨)에 착용시키고 약 3시간 후 내부 습도를 측정했을 때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했다.

촉감, 부착·제거 용이성 등 만족도는 제품별 차이를 보였다.

여성 100명에게 생리대를 직접 사용해 본 만족도 조사에서는, 촉감의 경우 ‘시크릿데이 포네이처’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건강한 순수한면’은 속옷에 생리대를 부착하는 부착 용이성과 떼어내는 제거 용이성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썬피유기능 100% 순면커버’가 가장 높았다.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0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의약품 고시에서 정한 흡수량, 강도 등 품질과 안전성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개당 가격은 ‘건강한 순수한면’이 16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라엘 센서티브’가 58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펠리세이드 등 3개 SUV차종, 배출가스 기준 초과 ‘리콜’

지프 레니게이드·볼보 XC60 등
펠리세이드 5만대 포함 총5.7만대
허용치 넘어… 일정 제작사 개별 안내

환경부가 13일 3개 SUV차종(국산 1·수입2)에 대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의 이유로 각 제조회사에 결함시정(리콜)을 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차종은 현대 펠리세이드 2.2디젤AWD와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 XC60 D5AWD 모델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보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매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

및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펠리세이드 2.2디젤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프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를 비롯해 질소산화물(NOx), 비메탄계유기가스(NMOG) 등 3개 항목에서 초과했다.

환경부는 오는 14일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각각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XC60 D5AWD는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

x) 등 2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조사인 볼보자동차가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없이 지난 5월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판매대수는 펠리세이드 2.2디젤AWD가 5만 대(생산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지프 레니게이드 2.4가 4000대(2015년 9월~2019년 12월), XC60 D5AWD가 3000대(2018년 4월~2020년 8월)로 리콜 대상은 총 5만7000대다.

환경부는 “이는 잠정 수치이며 정확한 리콜 규모는 결함시정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조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차량 소유자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2020년과 2021~2022년 검사에서는 각각 2개사가 리콜명령을 받은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용정보원, 군장병 미래직업 ‘VR체험관’ 韓, 아프리카대륙 녹색성장 지원 ‘박차’

구인기업·유관기관 70여 곳 참여

한국고용정보원이 13일 경기 고양킨텍스에서 개막한 ‘2023년 하반기 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고용정보원은 “군인들이 가상현실(VR)로 미래직업을 체험하고 청년정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방전직교육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군장병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인기업 및 유관기관 70여 곳이 참여한다.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관에서는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성해볼 수 있다. 또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실제 발굴현장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제



/한국고용정보원

공하고 있는 온라인청년센터를 소개한다. 취업·진로 고민을 전문 컨설턴트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개막식 테이프커팅식에 참석해 “진로탐색과 경력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군장병에게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체험관을 마련했다”며 “전역 후 진로·취업 고민에 해법을 찾아주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협약 체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오는 14일 부산에 위치한 아난티힐튼호텔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13일 기술원에 따르면 양측은 제7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의 부산 개최(12~15일)를 계기로 협약을 맺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KOAFEC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개발은행 간 경제협력을 위해 지난 2006년 출범한 협력기구이다. 7차 장관급 KOAFEC은 코로나19로 연기된 바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게 된다. 또 이들의 녹색기반사업 개발과 한국형 사업모델 적용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술원은 “지능형(스마트) 물관리와

폐기물 자원화, 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그린수소 등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기술과 경험이 아프리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약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은 5대 다자개발은행과 녹색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내 최초의 공공기관으로 기록된다. 나머지 4곳은 세계은행(WBG)과,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중미경제통합은행(CAEBI)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원은 현재 전 세계 12개국에서 16건의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자개발은행 재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 기술, 경험이 기후위기에 맞서야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서울시내 대형마트 채소코너에서 한 소비자가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추석 농식품 수급안정 최대 ‘40~50%’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기에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대비 20% 이상 늘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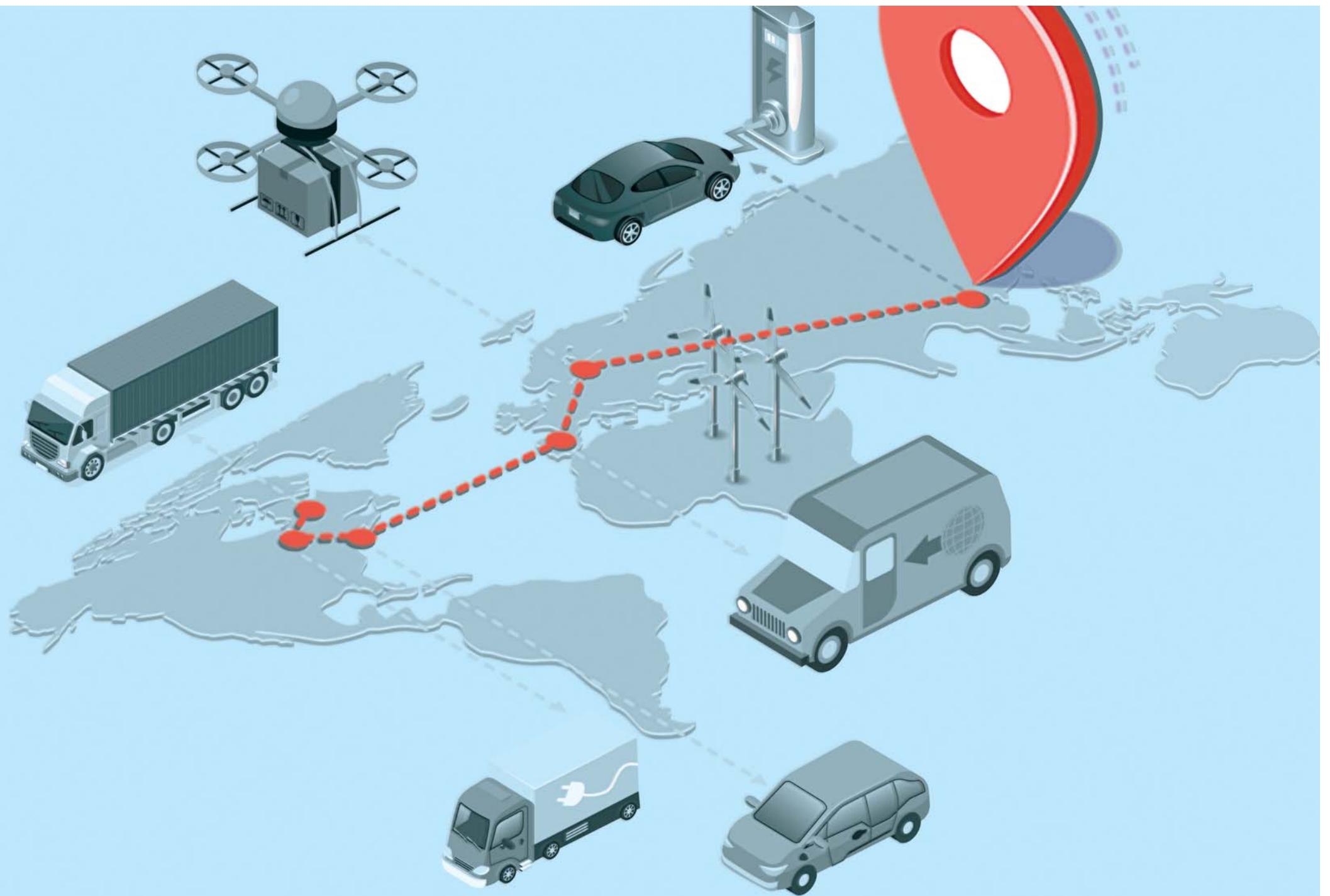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평시대비 1.6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 9000톤 성수품 공급,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알뜰 소비 정보 제공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 강화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배추·무 등 농산물을 비롯 소·돼지·계란 등 축산물, 밤·대추 등 임산물 등 14개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올해 작황이 좋지 않은 사과와 배의 경우 농협 계약물량 공급을 작년보다 2000톤 이상 확대하는 한편 가격이 저렴한 중소형 실속선물세트 공급물량을 6만개에서 8만개로 늘렸다.

박 실장은 “지난 11일 현재 성수품 공급물량은 3만2000톤으로 계획물량 대비 125% 증가시켰다”며 “정부할인 지원(20~30%) 포함, 시중보다 최대 40~50% 가격을 내린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명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일시 : 2023년 9월19일(화) 14~17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제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장소 :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블루투스 무선이어폰을 증정합니다.

경남,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3억’ 확보

창원 등 3개 시 36개소 지원
주민 생활편의 향상·복지증진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 발굴”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창원 시 등 3개 시 36개소에 총 113억 원(국비 90억 원, 지방비 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61.146㎢(창원시 248.368㎢, 김해시 109.153㎢, 양산시 97.102㎢, 함안군 6.523㎢)다.

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606개소에 1768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과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에는 농로 및 마을 안길 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0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4개소, 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

소 등 총 36개소에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별로 ▲창원시 17개소(안민고개길 조성사업 외 16개소) ▲김해시 15개소(대동 시례저수지누리길 조성사업 외 14개소) ▲양산시 4개소(창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외 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8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4개소에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생활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며 구역 및 주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사업’도 시행한다.

곽근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녹색 여가공간 조성 대상지 및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더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올로 갈맷길 함께 걷기’ 운영

부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올로(YOLO) 갈맷길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하고 오는 15일 오전 사하구 다대포 낙조분수 야외광장에서 개회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 국내·외 관광객 등과 함께 올로 갈맷길을 향유하며 건자’라는 콘셉트로 누구나 전문 트레킹 가이드와 함께 테마별로 부산 갈맷길을 걸어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정규 갈맷길 코스걷기 ▲올로(YOLO) 갈맷길 테마걷기 ▲달빛 갈맷길 테마걷기 ▲함께 갈맷길 걷기 등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시

제1호 ‘경주 야생화일기’ 지정

경주 제1호 민간정원 ‘경주야생화일기’가 최근 등록을 마쳤다.

경주시는 13일 강동면 왕신리 1270-1 일원에 위치한 ‘경주 야생화일기’가 경북 제8호 민간정원 겸 경주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난달 지정등록됐다고 밝혔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경북도지사가 지정하는 문자 그대로 민간정원이다. 이번에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경주 야생화일기’는 약 4480㎡ 규모로 총 213종의 초화류, 관목, 교목이 식재된 카페 및 식당 겸 꽃집이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진주시

‘치매극복의 날’ 주간 캠페인

진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 친화 사회를 위해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와 ‘극복 주간 캠페인’을 펼친다.

치매 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2007년 치매관리법에 따라 매년 9월 21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를 16일 오전 9시 상평동 송림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족들이 참여하며 난타, 판가요, 하모니카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진주(경남)=김영찬 기자

남해군

‘원스톱관광플랫폼’ 명칭 공모

남해군은 ‘남해군 원스톱관광플랫폼’의 명칭을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원스톱관광플랫폼은 관내 숙박, 음식, 체험 시설 등 정보 제공과 예약·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스마트관광의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관광객 편의 증진, 그리고 관광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남해군 원스톱관광플랫폼은 오는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포항, 물 절약 ESG 경영 ‘확산’

KT커머스 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물 사용 실태 진단해 기술 지원

포항시가 KT커머스와 손잡고 물 절약 사업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나선다.

포항시는 13일 시청에서 ‘물 절약 전문업’(WASCO: Water Saving Company) 기업인 KT커머스와 ‘물 절약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항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시설의 1등급 양변기 등 절수설비 교체로 물 절약 사업 촉진 및 ESG 경영을 실천하고 절수설비 사용 의무화 등 법규 준수에 앞장설 계획이며, KT커머스는 시청사본관의 물 사용 실태를 진단해 절수설비 설치 등 관련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

청사, 구청 등 공공시설의 절수설비 보급 및 물 절약 캠페인을 시행해 ESG 가치 실천이 포항지역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창환 KT커머스 대표는 “물 절약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ESG 실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포항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물 절약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시의 물 사용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등 물 절약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물 절약 실천 분위기가 지역 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역외기업 간담회.

대구,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본격화

서비스형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대구광역시는 블록체인 대구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블록체인 유망기업과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로 정보통신기술, 혁신금융, 디지털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구는 지난 5월 과기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수성구 알

파시티에 유치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개발 환경구축과 유망기업 육성 등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블록체인 산업의 지역 확산을 꾀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상용 메인넷 2종과 자체 개발 대구테스트넷을 블록체인 서비스형 기술개발 플랫폼(BaaS Platform)으로 구축해 기업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다양한 메인넷을 자유롭게 활용해 블록체인 노드를 생성하고 서비스 개발과 기술 검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업에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김상복 기자 ksk8100@

영천,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총력

“체계적인 위기도 조사 절차 마련”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전국적으로 2018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약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며,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전체 고독사의 52%가 50~60대 남성이라는 점이다. 고독사의 절반이 5060 남성에 분포한 점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에 따라 중장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영천시는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위기도 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실적, 공과금 체납, 가족의 사망 등 위기 사유를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 2687명을 추출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독사 위기도 조사 문항”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위기도 조사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조례(“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개정 조례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영천(경북)=이상호 기자

울산,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 54억 확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불편 해소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총 6건이 선정돼 국비 54억 3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비 13억 7300만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68억 원에 달한다.

선정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 기반 사업 3건과 구역 내 경관개선, 누리길 등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환경문화 사업 3건을 합쳐 모두 6건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축사사색의길 조성사업(9억 원) ▲무룡산정상 전망원터 조성사업(9억 원)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10억 원) ▲품암~길촌마을 도로 확장사업(12억 원) 등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주류업계, 주종 다변화로 올 맥주판매 4조 달성 ‘조마조마’

상반기 맥주 소매판매 2조 밀돌아
올 위스키 1만6900t 수입, 51% ↑

롯데칠성 소주 ‘새로’ 앞세워
팝업 열고 시장점유율 확대 나서
하이트진로 ‘프리미엄 와인’ 집중

올해 엔데믹 후 첫 여름을 맞았던 주류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키와 와인 등 주종다변화로 인해 소주와 맥주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신제품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지출 및 과열 경쟁으로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맥주 소매 시장은 판매액이 2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링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맥주 소매점 매출액은 1조86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565억원)보다 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매출액이 2조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해 전체 매출액도 4조원을 밑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020년 4조3771억원 수준이던 맥주 소매점



라리크 카요타

/하이트진로



한맥 스무스 거품기

/오비맥주

매출액은 이듬해 4조2462억원, 지난해 4조1358억원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

맥주 시장의 축소는 위스키·와인 등 대체 시장의 빠른 성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류를 소비하는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맥주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위스키의 수요가 급증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스카치·버번·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1만6900t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 기록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9% 급증한 수치다.

롯데멤버스가 공개한 ‘요즘, 우리는’ 뉴스레터에 담긴 주류 소비 트렌드를 살펴봐도 위스키에 토닉워터를 타먹는 혼합주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롯데멤버스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88.5%가 ‘술에 다른 음료나 주종을 섞어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롯데 전 유통점에서의 거래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2020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위스키 판매량은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봐도 각각 126% 늘어난 수준이다.

주류회사 성적표를 살펴보면 하이트진로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80.9% 줄어 각각 6416억원, 119억원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롯데칠성음료의 주류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1982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75.8% 하락한 23억원을 보였다.

하이트진로는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오비맥주의 카스에 밀려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카스는 올 상반기 매출액 7239억원을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했다. 카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7688억원)보다 매출액이 5.9% 감소했지만, 시장점유율 36.8%로 선두자리를 유지했다. 카스가 선두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제조사별 점유율에서도 오비맥주는 47.3%로 1위를 유지했고, 하이트진로는 28.5%로 2위를 기록했다.

맥주 성수기인 여름이 지나간만큼 업계는 연말 시장을 겨냥하는 모습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소주와 와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관련 제품 판매에 주력할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제로 슈거 소주 ‘새로’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나선다.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시한 새로운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새로운 그해 연말까지 3500만병(365ml 기준)이 팔렸다. 올해 들어 월간 판매량이 2000만병으로 확대되면서 4월 말 누적 판매량 1억병을 돌파했다. 이런 흐름세라면 내달 누적 판매량 2억병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성수동 데어바타데에서 ‘새로02-57’ 팝업스토어를 열고, 신규 CF도 선보이는 등 브랜드 알리기와 소비자 점점 넓히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시장에 집중함과 동시에 와인 판매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상반기 프리미엄급 와인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30% 상승했다. 하이트진로는 가격이 합리적인 데일리 와인부터 프리미엄 와인까지 100여개 브랜드, 1000여종 와인을 수입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정관장 ‘홍삼오일’ 2주만에 초도물량 완판

캡슐 1개에 홍삼 10뿌리 들어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 시험서 확인

정관장은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홍삼오일 RXGIN CLEAN(알엑스진 클린)’이 출시 13일만에 초도물량이 모두 판매되면서 품절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전립선 건강 개별인정형 원료로 공식 인정받은 홍삼 오일을 주원료로 했다.

지난 8월31일 전국 정관장 가맹점과 직영점을 시작으로 출시된 ‘홍삼오일 알엑스진 클린’은 본격 판매를 개시한 첫날부터 3000세트를 돌파하고, 불과 13일만에 일부 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초도물량 판매가 완료됐다. 이는 지금까지 정관장 신제품 중 가장 빠른 매출속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홍삼오일 알엑스진 클린’에 들어간 홍삼오일은 홍삼 1뿌리에서 단 0.05g만 추출되는 귀한 소재로, 캡슐(502mg)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삼 10뿌리가 필



홍삼오일 알엑스진 클린

/KGC인삼공사

요하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홍삼오일에 대해 연구한 결과 홍삼오일이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동물실험은 물론 인체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공식인정 받았으며, 특허등록도 완료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세웅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홍삼오일을 섭취하면 빈뇨, 야간뇨, 배뇨지연, 요절박 등의 전립선 비대 증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성기능 장애 부분도 개선할 수 있

다는 연구결과를 비뇨의학부문의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KGC인삼공사는 홍삼오일이 홍삼 1뿌리에서 단 0.05g만 추출되 대량생산이 어려워 한정수량으로 2개월간의 물량을 먼저 준비한 후, 이후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출시 13일만에 초도물량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긴급 추가생산에 돌입했다. 신규로 입고될 제품들은 9월 중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입고돼 9월 말부터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KGC인삼공사는 ‘홍삼오일 알엑스진 클린’이 전립선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중년남성을 중심으로 자가접취용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정관장의 건강물 ‘정물’에 따르면 ‘홍삼오일 알엑스진 클린’ 구매고객 중 70% 이상이 50대 이상이였으며, 2~3개월치를 한번에 구입하는 고객도 2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 제로슈거 소주 ‘새로’ 새 광고 선포

문자도 활용 CF 3편 순차공개

롯데칠성음료의 제로 슈거 소주 ‘새로’가 문자도(文字圖)를 활용한 새로운 TV CF 세 편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한 층 더 가깝게 다가간다. 수목화 형식의 문자도를 통해 동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출시 초기부터 선보인 애니메이션 형태의 광고 형식을 빌려 연속성과 친밀감을 더했다.

새로운 TV CF는 과당을 포함한 적 없는 제로 슈거 소주임을 강조하는 ‘무(無)’편, 갓 만들어낸 듯한 산뜻하고 부드러운 ‘새로’의 맛을 표현한 ‘갓’편, 출시 초기부터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주목받은 ‘새로’의 병 디자인을 강조한 ‘미(美)’편으로 구성했으며, 14일부터 순차 공개된다.

한편, 제로 슈거 소주 ‘새로’는 출시 1주년을 맞아 성수동에서 오는 25일까지 ‘새로’의 세계관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02-57 동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새로를 대표하는 캐릭터 ‘새로구미’



없을 무



새로 TV CF

/롯데칠성음료

의 출생지인 강릉 동대굴의 지번 주소 257과 서울의 지역번호 02를 활용해 서울 도심 속에 나타난 새로02-57 동굴을 표현했다. 팝업스토어는 신비로운 동굴 형태의 소비자 체험 공간인 포토존, 미디어아트 관람존, 굿즈존, 시음존으로 구성됐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 ‘당도 보장’ 선물용 과일 선포

사과·배·샤인머스켓 등 500세트 마련

현대백화점이 추석 선물 과일 ‘당도 보장’에 나섰다.

산지 출하 기준보다 당도 기준을 1~2브릭스(brix) 높여선별함은 물론, 선물 세트에 들어가는 모든 과일의 당도를 일일이 손으로 측정해 상품에 내놓는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에서 ‘비파괴 당도 측정 전수조사’를 통

해 선별한 H스위트(H-SWEET) 고당도 ‘사과·배’와 ‘샤인머스켓’ 세트를 각각 200세트, 300세트 총 500세트 한정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H스위트는 현대백화점이 과일의 당도, 크기, 신품종, 희소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선보이는 프리미엄 청과 브랜드다.

이번 H스위트 고당도 선물세트는 현대백화점이 비파괴선과 검사로 빛의 굴절률을 이용해 당도를 측정해, 기준치 이

상 당도를 함유한 과일만으로 세트를 구성한 게 특징이다. 당도 기준은 사과 15브릭스, 배 13브릭스, 샤인머스켓 18브릭스 이상으로 산지에서 고당도로 분류되는 기준보다 1~2브릭스 높여 잡았다.

특히, 이 세트에 구성되는 과일들은 전량 현대백화점이 일일이 손으로 측정해 100% 당도를 보장한다. 기존 선물세트는 산지 수확 전(1단계)→산지 수확 후(2단계)→물류센터(3단계)→포장(4단계) 등 총 4단계의 당도 선별 작업을 거쳐 평균 95% 이상 당도를 유지하는데, 이번 선물세트는 포장 전 비파괴 당도 측정 전수조사 단계를 추가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하이트진로, 진로하우스와인 패키지 리뉴얼

빨간색 마개 적용… 14년만에 단행

하이트진로는 국내 와인 대중화에 따라 트렌드를 반영해 가성비 와인인 ‘진로하우스와인’의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09년 이후 14년만의 리뉴얼이다.

진로하우스와인의 주요 소비자층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통성은 유지한 채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강렬한 빨간색 마개를 적용해

레드 와인의 특성을 담았으며 직관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1966년 출시된 진로하우스와인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한국형 와인으로 50여 년간 매년 약 400만병이 판매되며 하이트진로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스페인 포도 품종을 함유해 달콤하면서도 깊고 풍부한 와인 맛을 구현했으며, 대형 마트, 수퍼 등 가정 채널에서 2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제프티’ 긴급사용승인 순항… 코로나19 게임체인저 기대

HYUNDAI
BIO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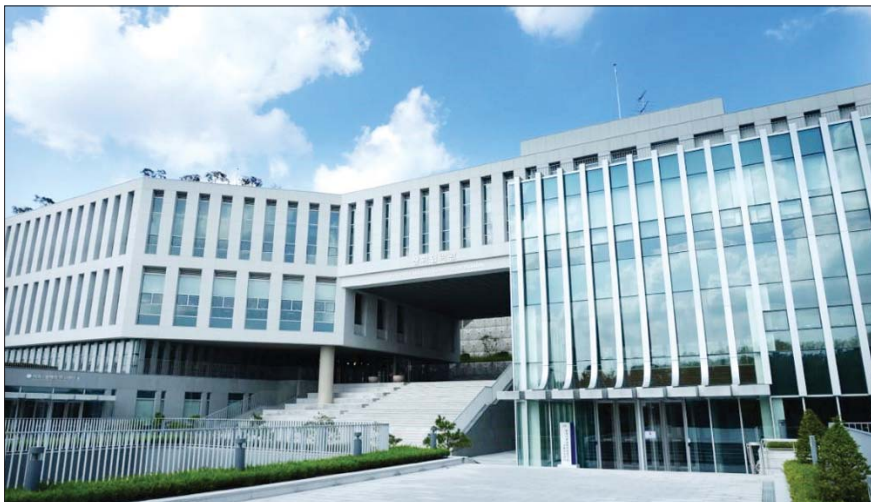
코로나 치료 추가분석 보고서 제출
저위험·고위험군 전반 개선 효과
병용투약에도 중대 이상반응 없어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바이오는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프티의 코로나19로 인한 12가지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에 대한 추가분석 통계분석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의 12개 증상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 또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보고서에서 mITT군(1회 이상 투약한 모든 임상시험 참여자를 통계분석 대상군으로 한 것)을 분석한 결과, 제프티는 mITT군에서의 증상 개선 소요일이 9일로 위약복용자의 12.5일보다 3.5일 단축됐다.

이는 제프티가 다른 치료제보다 월등한 효과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추가 분석에서 현대바이오는 미국 FDA가 긴급사용 승인 한 팩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전경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른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은 통계분석 주분석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바이오는 제프피가 코로나19로 인한 12가지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와 관련해 PPS군(임상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임상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상시험 참여자를 통계분석군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한 통계분석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로써 제프티는 세계 최초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모두 포함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의 12가지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무엇보다 현대바이오는 제프티의 안정성을 확인했다. 제프티와 약물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병용금기약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용금기약물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약 등 37종이 있다.

제프티는 이번 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평소에 복용하던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동맥경화증약, 협심증약, 혈전억제제, 탈모치료제, 간장질환약,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제프티를 병용투약하였음에도 모든 임상대상자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피롤라’라 불리는 오미크론 BA.2.86 등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형정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제프티는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 등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제프티 하나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우형정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끝없이 변이를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변이될 때마다 그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프티로는 여러 바이러스를 모두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프티는 세포의 자가포식작용을 정상화시켜 세포가 스스로 세포 내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제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팩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조코바 등은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의 작용을 막음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다. 제프티가 긴급사용승인 되면 세계 최초로 숙주 표적 작용기전을 갖는 항바이러스제가 되는 것이다.

미국 NIH(국립보건원) 등에서 35년 동안 감염병 치료제 연구를 한 조 하이트 박사는 “미국 FDA가 지정한 증상 에 대한 효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용가능하다는 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등 제프티는 타미플루와 비슷한 점이 많다”며 “타미플루가 신종플루의 유행을 막은 게임체인저가 된 것처럼 제프티가 코로나19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수습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J CGV

실권주 공모 3.3兆 ‘흥행’

CJ CGV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이 7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CJ CGV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주주 실권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 공모 청약에 3조3310억원의 자금이 몰려 7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6~7일 진행된 주주 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 791만 7643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는 오는 9월 27일 상장한다.

CJ CGV 최정필 경영지원담당은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힘입어 성장 발판을 마련해 더 나은 기업가치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엑세스바이오

‘에스패치-EX’ FDA 승인

엑세스바이오는 지난 2022년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맺은 웰리스의 패치형 심전도계 ‘에스패치-EX’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웰리스는 지난 2019년 국내 기업 삼성SDS로부터 스피노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에스패치-EX’는 무게가 9g으로 작고 가볍다. 케이블 형태의 패치 디자인으로 노이즈를 최소화하면서 정확한 심전도 파형을 수집한다.

엑세스바이오는 웰리스의 플랫폼 기술을 자사 진단 제품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이청하 수습기자

유통업계 신제품



대용제약

‘이지엔6 나이트’ 출시

대용제약이 통증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통증’으로 인한 불면증 해결에 나섰다.

대용제약은 통증맞춤형 진통제 이지엔6 시리즈의 6번째 제품으로 ‘이지엔6 나이트’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지엔6 나이트’는 두통·요통·생리통 등 다양한 통증을 줄이면서 숙면을 유도해 진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기전을 가진다. 이를 위해 대용제약은 진통 성분 이부브로펜 200mg과 수면 유도 성분인 디펜히드라민 25mg을 조합했다. 특히 디펜히드라민은 25mg 기준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이 2시간 정도로 짧아 효과가 빠르다. 아울러 비마약성 성분으로 구성돼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청하 수습기자

삼성, ADC 기업 키운다… 에임드바이오 지분 투자

(항체-약물 접합체)

ADC 툴박스 공동연구 등 협업
K-바이오 생태계 활성화 본격화

삼성이 항체 및 항체-약물 접합체(ADC)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투자하며 ADC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기업에 투자한 적은 있지만 국내 ADC 기업 투자는 첫 사례다. 국내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차세대 바이오 기술 육성 및 K-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13일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는 네 번째 투자처로 국내 기업 에임드바이오(AimedBio)

를 선정하고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지분 투자와 함께 에임드바이오와 ADC 툴박스 개발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단일 항체 기반 아토피·치매 치료제에 대한 위탁개발(CDO) 과제를 수행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8년에 설립된 에임드바이오는, 삼성의료원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독자 기술로 파이프라인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에임드바이오는 해당 기술을 항체 및 ADC 등 바이오 신약 개발에 적용해 현재까지 3개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 국가신약개발재단(KDDF)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그 중 AMB302는 교모세포종이라는 악성뇌종양과 방광암에 대한 FGFR3 타겟의 ADC 혁신신약 후보 물질로 내년 첫 임상에 진입한다.

삼성은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부상한 ADC 부문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JPM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ADC를 포함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비전과 ADC 전용 생산 설비 계획을 발표했으며, 4월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ADC

링커 및 접합 기술 개발사인 스위스 아라리스 바이오(Araris Biotech)에 투자한 바 있다.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2021년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출자한 1500억원과 올해 1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출자한 200억원이 더해진 총 17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지난 2022년 3월 미국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 재규어진테라피, 같은 해 5월 미국 나노 입자 약물전달체 개발사 샌다 바이오사이언스, 올해 4월 스위스 ADC 기술 기업 아라리스 바이오테크 등 이제까지 3곳에 투자를 진행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미사이언스, ‘비만 관리’ 미래 성장동력 선정… “맞춤형 치료제 개발”

‘H.O.P’ 브랜딩… 포트폴리오 구축

한미사이언스가 그룹사 미래를 위한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비만 관리’를 선정했다. 회사는 ‘비만’ 프로젝트를 ‘H.O.P(Hanmi Obesity Pipeline)’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해 한미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H.O.P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한국인 맞춤형 GLP-1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에페글레타이드’와, GLP-

1 및 에너지 대사량을 높이는 글루카곤,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제를 돕는 GIP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차세대 삼중작용제(LA-GLP·GIP·GCG)’를 포함한 5종의 치료제로 현재 구축된 상태다.

특히 LA-GLP·GIP·GCG는 한미의 기존 바이오신약 플랫폼 ‘렙스커버리’가 아닌, 최근 완성 단계에 진입한 차세대 독자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후보물질로, 현재 NASH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2b상이 진행 중인 ‘에포시페그

듀타이드’와는 다른 것이다.

한미는 전임상을 통해 확인한 효력을 토대로, LA-GLP·GIP·GCG가 수술적 요법에 따른 체중감량 효과(25% 내외)에 버금가는 강력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미는 GLP-1 제제 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 근육량 손실을 방지해 체중감량의 퀄리티를 개선하고 요요 현상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오신약과, 폭식 등 섭식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후보물질도 최근 도출하는 등 활

발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한미는 현재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개발에도 착수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먹는 형태의 GLP-1 제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한미는 비만의 치료뿐 아니라 예방, 체중 감소 이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비만 치료 전주기적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치료제’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세경기자



삼표그룹, 취업준비 청년 응원 프로젝트

삼표그룹이 청년의 날(9월16일)을 맞아 성동청년플랫폼과 함께 서울 성동구의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응원 프로젝트인 '꿈 많은 너를 응원해'를 진행한다. 스튜디오에서 이력서용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표그룹



마사회, 스포츠말 품평회·어린이말 승마대회 개막

한국마사회가 주최하는 '제12회 스포츠말 품평회'와 '제10회 어린이말 승마대회'가 지난 12일 경북 상주 소재 국제승마장에서 막을 올렸다. 사진은 참가선수 경기모습. /한국마사회



인하대, 하와이 이주 120주년 기념 특강

인하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최근 하와이 이주 120주년을 기념하는 특강을 진행했다.아만다 장 변호사가 '미국의 이민 정책과 미국 이민 스토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인하대

FISITA 차기회장에 김창환

현대차·기아 배터리개발센터장

김창환 현대차·기아 배터리개발센터장(사진)이한국인 최초로 세계 38개국 자동차공학회 연합체 회장으로 활동한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개발센터장과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장을 겸직 중인 김창환 전무가 세계자동차공학회연합(FISITA)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인이 FISITA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ISITA는 전세계 38개국의 자동차공학회가 참여하는 자동차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기관 연합체다. 1948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주축으로 설립된 이래 약 21만명의 글로벌 자동차 연구원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양성운 기자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김성은
- ◆성신여대 △미래인재처장 이성기 △학술정보원장 김연식
- ◆신아일보 △광고국장 송원철

부음

▲최명관(동해시의회 부의장)씨 별세, 박신영씨 남편상, 최수지·최진호씨 부친상 = 13일 오전, 동해중앙장례식장 3층 VIP분향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동해시 하늘정원. 033-521-3700

LG화학, 독일에 ‘유럽 CS센터’ 오픈… 지위 강화

500억 투입 프랑크푸르트 위치
현지서 기술 솔루션 제공 가능
친환경소재 특허 전문인력 상주

LG화학이 유럽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밀착 지원 강화에 나선다. 유럽 시장은 LG화학이 2005년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이 100배 가까이 성장한 ‘주요 시장’으로 꼽힌다.

LG화학은 13일(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 ‘유럽 CS센터(Customer Solution Center)’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고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유럽 CS센터 개관을 통해 현지에서 기술 솔루션이 제공 가능한 고객 대응 거점을 구축



LG화학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CS센터.

/LG화학

해 유럽에서의 시장 지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CS센터는 고객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종합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조직이다.

유럽 CS센터는 2021년 9월부터 약

50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지상 3층, 연면적 약 7400㎡(약 2300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압출과 사출 등 고객사 양산 설비 수준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LG화학 측은 “특히 유럽의 주요 고객인 자동차 소재 외에도 재활용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에 특화된

현대모비스 ‘엠브레인’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

독보적 안전기술 등 공로 인정받아
운전자 뇌파 분석, 피곤·졸음 등 체크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뇌파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엠브레인’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현대모비스는 13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엠브레인이 안전기술대상 최고상에 해당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독보적 안전 신기술을 개발

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등 보급 및 확산에 힘써 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대모비스의 엠브레인은 운전자의 뇌파를 분석해 피곤, 졸음, 부주의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다.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질 경우 운전석 시야 주변의 LED, 진동 시트, 헤드레스트 스피커 등을 활용해 시각, 촉각, 청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한다.

엠브레인은 경기도 공공버스에 시범 도입돼 더욱 안전한 대중교통

주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엠브레인 착용 후 버스 운행시 운전 부주의 발생 빈도가 25.3% 감소했다. 2021년 10대로 시작해 올해 300대 보급이 이뤄졌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단계적으로 보급량을 늘려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사용자의 마음을 읽는’ 엠브레인의 특성에 착안해 아동 심리 상담 지원에도 나섰다.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 6개 아동보



뇌파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엠브레인’을 시연하는 모습.

호기관에 전달돼 심리 상담에 활용되고 있다. 뇌파를 통해 드러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 상담 효과를 극대화해준다는 평가다.

/양성운 기자 ysw@

대우건설, 임직원 ‘헌혈 캠페인’ 전개

을지로 본사 앞에 헌혈버스 방문

대우건설은 오는 15일까지 본사와 국내 현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3 대우건설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우건설 임직원이 을지로 본사 앞 헌혈 버스를 방문해 참여했다. 헌혈 버스 방문이 어려운 임직원은 헌혈증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대우건설의 헌혈 캠페인은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전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명 나눔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헌혈에 참가한 대우건설 직원은 “매년 회사에서 진행하는 헌혈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며 만족을 느끼고, 헌혈 30회를 채워 대한적십자사 은장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전했다.

/김대한 기자 kdh@

KCC글라스, 방음벽 조류 충돌방지 활동

흙씨씨 봉사단 등 60여명 참여

KCC글라스 임직원들로 구성된 ‘흙씨씨 챌린저 봉사단’이 야생조류를 방음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활동을 진행했다.

13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 부내교차로 일대 투명 방음벽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흙씨씨 챌린저 봉사단 외에도 구독자 44만명의 유튜브 새덕후 및 구독자를 비롯해 국립생태원, 이화여대 소모임 ‘윈도우스트라이크 모니터링’ 등에서 모인 약 60여명의 인원이 함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포스코인터, 친환경 에너지 팝업북 기부

총 200여권, 학용품세트 전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천 연수구 지역아동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팝업북’을 기부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2일 사단법인 글로벌비전과 ‘친환경 에너지 팝업북’ 200 여권과 학용품 세트를 인천 대표 지역아동센터인 쉼마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

다. 팝업북은 페이지를 펼쳤을 때 숨어 있던 그림과 구조물이 입체적으로 올라와 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책자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초 포스코에너지와의 합병 이후 직원간의 화합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활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팝업북 제작에 참여하며 유대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도 되었다.

/양성운 기자

KRX-동아대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

주민 3000여명에 8개 과목 진료

한국거래소는 동아대학교병원과 함께 12일부터 14일까지, 캄보디아 남부 캄푹 주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봉사단은 평소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지역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 안과, 치과, 정형외과 등 총 8개 진료과목에 대한 종합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지 의료기관에 자

혈암계, 체성분측정기, 소독기 등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전달함으로써, 봉사활동 이후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소독과 의료수준이 열악한 저개발국가의 주민들은 코로나19 이후 도움이 손길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거래소는 해외 의료봉사활동 등 희망을 전하는 글로벌 나눔경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예측 가능한 미래와 ESG 경영



이수준의
서민들의 부동산

모든 투자의 관건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투자도 정책, 세제의 변화, 산업 트렌드, 사회적 이슈에 내 자산 가치가 직접 닿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예측은 늘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ESG경영 트렌드가 아닐까 싶다.

ESG란 쉽게 말하자면 제한된 상황과 환경을 합리적으로 아껴 쓰는 것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 ent),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 overnance)를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그래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은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등 여러 요소가 한데 섞인 종합적인 분야다. 그래

서 지금 전 지구적 화두가 되는 탄소 배출 감소와 같은 환경문제와 떼어 놓을 수 없다. 당장 집 한 채, 구분상가 한 칸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ESG는 원론적이고 진부한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ESG를 비재무적 요소라고 말하지만, 그 방향성을 따르는 여부는 향후 각종 규제 변화, 운용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니 장기적으로는 재무적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

상업용 건물을 거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입지·규모·구조만을 눈여겨보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ESG 경영에 부합하는지가 주안점이다. 또한 내가 조합원으로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설계는 과연 이러한 발전 방향에 걸맞게 가고 있는지, 흔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도 단열, 외장 등의 설계가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하는지, 전기차 운행의 편의성은 갖추었는지까지 세세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임대시장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일수록 입점 부동산의 소유주나 운영 주체가 탄소 중립 정책을 준수하는지를 눈여겨

본다. 그 변화의 속도는 실정법의 변화보다도 앞선다. 그러니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부동산에까지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해외에서도 ESG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특히 도시계획이 한창인 신흥개발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북미,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오히려 구시가지의 슬럼화에 발목 잡힐 수 있는 개념인데 반해,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은 오히려 적용이 빠르고 홍보도 편하다.

쿠알라룸푸르의 초대형 업무, 상업 복합시설인 TNB 플래티넘 캠퍼스, 높이 679m에 달하는 ‘메르데카 118’ 등은 모두 전기, 내외장 설비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기술을 적용했다. 한창 개발 중인 베트남의 동부 사이공 스마트 도시들은 계획단계부터 대중교통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모든 도로, 철도, 건축 디자인을 정했고,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투자자, 개발업체들의 행동 강령이 되었다.

/이수준 대표 로이에 아시아 컨설턴트

합정에 빠진 K칩, 정부가 나설 때



김재웅의
〈산업부〉

중국 화웨이가 오랜만에 내놓은 스마트폰이 전세계 산업계를 긴장케 했다. 미국 무역 제재를 뚫고 7나노 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첨단 메모리를 들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모두가 팔을 걷어 붙였다.

그러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7나노 칩은 구형 장비로 비싸게 만든 것, 메모리도 비공식 유통망을 이용해 어렵게 소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설계 과정에서 미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때문에 이번 이슈가 양측의 뜻에 따라

의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 무역 규제가 의미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미국은 중국 제재 강화 방침에 힘을 싣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각 이해 관계자들은 사건 이후 말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중국에서는 미국 무역 규제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을 키워주는 셈이 된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미국 정부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어쨌든 양국 정부는 윈윈이다. 결정권은 미국 정부에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정당성도 확보했다. 중국 정부도 오히려 자체 생태계를 확보할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마치 일본 무역 제재로 소부장 국산화 성과를 거뒀던 우리나라처럼. 그동안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되긴 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쪽은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결정하면 되고, 중국 정부는 여기에 따라 방침을 정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은 불확실성을 떠안아야함은 물론, 결정에 따른 전략도 수정해야한다.

미국 기업들은 자신있게 반기를 들었다. 엔데믹 호재 속에서도 회복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 무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워싱턴D.C에서 모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협회(SIA)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미국 정부도 현지 기업을 위한 정책을 고민중이다.

그러나 제3국인 한국 기업은 그야말로 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화웨이 스마트폰에 한국산 반도체가 나오면서 공포는 더 커졌다. 뒤늦게야 미국 마이크론 메모리도 탑재됐었다는 대만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합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도 어렵게 됐다.

/juk@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4일 (음 7월 3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지 매사 조심. 48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 60년생 흐르는 물처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 72년생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 만남을 주의. 84년생 동상에 걸린 발을 얼음물에 넣는 격.



37년생 현상유지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49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 61년생 자식이 큰 상을 받으니 날아갈 듯. 73년생 상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니 경청. 85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38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50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잇는 법이니 서운해 마라. 62년생 조언도 사람을 봐가며 해야. 74년생 받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베풀어라. 86년생 연애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39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 51년생 성공이 눈앞에 왔으니 최선을 다하자. 63년생 마음은 바빠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75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87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



40년생 가족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날. 52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64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맞다. 76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88년생 흉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41년생 약속을 지키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53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65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 77년생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마음만 다친다. 89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42년생 보이스피싱에 유의. 54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66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문서를 잘 살펴야 한다. 78년생 인연이 찾아오나 갈등이 시작. 90년생 지나치게 강한 것도 착각에서 나올 수.



43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 55년생 사업일은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다. 67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 79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91년생 결과 속은 다를 수밖에.



44년생 말이 많으니 조심. 56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68년생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의도는 왜곡되기 쉽다. 80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92년생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45년생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니 공연히 자식싸움에 멀리하자 57년생 부모가 안개 시면 형제도 타인. 69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한발양보를. 81년생 함께하려거든 상대를 의심 하지 마라. 93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흡족하



46년생 모두현령(猫頭懸鈴)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뜻이다. 58년생 매매일이 잘 풀리니 감사. 70년생 정성을 다하면 결과가 헛되지 않는다. 82년생 새로운 이상이 다가오나 내 짝이 아니다. 94년생 개미구멍으로도 독은 무너진다.



47년생 내 말이 자식에게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59년생 공돌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1년생 진실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니 침묵이 필요. 83년생 내가 옳다고 내 주장만 펼치지 마라. 95년생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수밖에.

김상회의四季

조명으로 기 살리기

터가 명당이라며 자리 좋은 곳에 집터를 정하고 풍수 상담을 청했다.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감싸고 앞에는 남한강이 뿔뿔이 가는 멋진 곳이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 땅이 살짝 비탈져있다. 비탈진 곳이지만 요즘 기술이 좋아서 집을 짓거나 건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비탈진 집터는 재물과 생기가 흘러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비탈진 곳에 물을 부으면 흘러내리듯 비탈진 땅에 집을 지으면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짓기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에는 풍수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다. 필자가 원하는 방법은 빛을 이용하는 것이다. 집이나 건물에서 조명으로 비탈진 곳에서 재물과 기운이 흘러나가지 않게 땅 아래쪽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보완이 된다. 땅의 기울어짐을 보완하고 기를 모으는 데 효과적이다. 풍수의 초점은 좋은 기운을 끌어모으는 것이다. 대부분 침실에는 의도적으로 부드럽고 약한 조명을 사용한다. 이런 조명은 음의 기운을 퍼뜨리는데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 효과적인 풍수의 교정이라고 볼 수 있다.

풍수로 봤을 때 건물은 사각형으로 짓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한쪽으로 꺾어지는 건물을 지어야 할 때도 있다. 이때는 건물의 한쪽 귀퉁이에 커다란 조명 스탠드를 설치하면 다각형 때문에 생기는 풍수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 건물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조명은 사람의 심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고장 난 전구를 고치기 귀찮다고 그냥 두는 집도 있는데 풍수 효과를 깎아 먹게 된다. 조명은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집을 비추는 빛이다. 빛이 밝아야 밝은 기운이 집을 감싼다. 꺼진 전구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족한 풍수를 교정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7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7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9			6	8	4			2
	8							1
4	1		9		5		2	6
		8				7		
6	2		4		8		9	3
	6							8
				4				
8			2	3	7			5

4			7	9				1
8								7
	7	9		3		8	2	
			8		6			
	4			2			6	
			4		1			
	2	4		6		9	1	
9								6
3			9		5			2

정답

9	9	1	2	8	2	6	7	8
6	8	2	9	7	8	9	2	1
2	8	7	1	6	9	2	9	8
8	6	9	8	1	7	2	2	9
1	7	2	2	9	8	8	6	9
9	2	8	9	2	6	8	1	7
7	1	6	8	9	2	9	8	2
8	9	9	6	2	1	7	8	2
2	2	8	7	8	9	1	9	6

2	7	2	9	1	6	9	8	8
9	9	8	8	7	2	2	1	6
8	1	6	2	9	8	7	2	9
8	8	2	1	2	7	9	6	9
6	9	1	8	2	9	8	7	2
7	2	9	9	6	8	1	8	2
9	2	8	7	8	9	6	2	1
2	6	7	2	9	1	8	9	8
1	8	9	6	8	2	2	9	7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ONTES ALPHA

A TOUCH OF GRACE

나의 첫 와인 몬테스 알파

NARA
CELLAR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김기문 “中企 경쟁력 살리는 규제개혁, 여야 힘 모아야”

중기중앙회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
킬러규제 혁신, 국회에 지원 촉구
근로시간 유연화·중처법 개선 시급

중소기업중앙회가 ‘킬러규제 TOP 100’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24건에 대해 국회에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경비 포함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과도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규제 완화 ▲신의료기기 규제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규제개혁”이라며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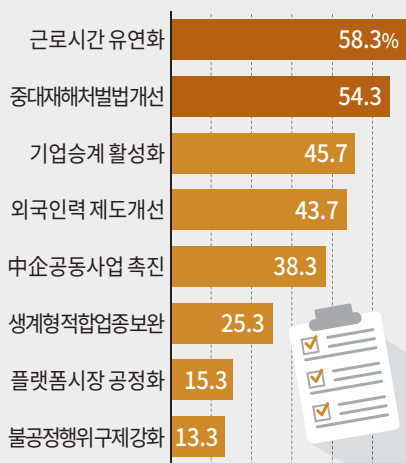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전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가 좋지 않은 지금은 규제개혁을 가장 우선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기업, 정부, 국회가 삼위일체가 돼 (규제개혁을 통해)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규제의 90% 가량은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등 정부의 의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입법과제

중소기업 300곳 대상 설문조사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지만으로도 개혁할 수 있다. 나머지 10% 정도는 입법 사항이라 국회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노동(규제)은 99%가 입법 사항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힘을 써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대표적인 킬러규제 중 하나로 꼽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

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관련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더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8만 곳에 이르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운데 정부의 관련 컨설팅 지원도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만6000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평가’도 올해 5월 고시가 개정돼 현장 안착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다.

10월 본격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노무비, 전기료·가스비와 같은 경비 등 적용 항목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원재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로도 불리는 노무비, 경비 등의 각종 비용이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도 연동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구인공고를 내도 내국인이 오지 않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야 가동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서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과 관련한 사업장 변경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책임이나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아닐 시 일정기간 사업장 변경을 막고, 사업장 변경 횟수도 기존의 5회에서 3회로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을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이외에 ▲증여세 연부연납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45.7%)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외국인 근로자 제도개선(43.7%)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 배제 등 중소기업 공동사업 촉진(38.3%) 등이 뒤를 이었다.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소상공인 지원정보, ‘왔다’로 한번에

중기부, 지원사업정보 앱 서비스 시작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 가능… 편의성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제공 한다.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간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람서

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중기부 정책정보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이영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해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왔다’ 앱은 중기부 누리집이나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여경협, 여성기업 애로 해결사 역할 ‘톡톡’

여성기업경영애로지원센터 운영
담임제 통해 총 1790개사 컨설팅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가 지난해 담임제를 통해 총 1790개사의 컨설팅을 펼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13일 여경협에 따르면 2016년부터 중소기업부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애로지원센터는 창업·경영, 회계·자금, 수출·무역, 인사·노무 등 전문가6명이 전국6개 광역권에 상주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 선배 여성

CEO 및 여성전문가 53명도 추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 경영상담은 2545건, 멘토링 180건을 각각 수행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96.6점을 받아 여성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현재 1800건의 상담이 이뤄져 컨설팅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정환 이사장은 “여성기업의 창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창업과 수출, 마케팅, 회계, 특허 등 컨설팅을 활성화해 여성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 신설

ESG 선제적 솔루션, 리스크 관리 등

디라이트(D'Light)가 다양한 기업들의 ESG 선제적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ESG지속가능센터’를 신설한다.

13일 디라이트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는 물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ESG에 대한 중요성은 투자 시장에서부터 글로벌 경제 규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안전 ▲글로벌 공급망 감사 규제 ▲기후 위기 대응 등이 포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의 경영환경과 규모에 맞춰 ESG 요소를 경영시스템에 내재화하고, 관리를 돕는 ‘ESG지속가능센터’를 개설했다.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는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조선희 파트너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ESG 관련 법·규제 자문을 전담한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ESG 경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글로벌 수준의 ESG 철학을 기반으로 더 큰 성장 모델링을 확보할 수 있게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경동나비엔

조정밀 ‘숙면매트’ 선포

경동나비엔이 0.5도 조정밀 온도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최적의 숙면 환경을 제공하는 ‘나비엔 숙면매트’(사진)를 출시했다.

13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나비엔 숙면매트는 0.5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온도제어 기술로 사용자에게 맞는 최적의 숙면온도를 제공한다.

제품은 숙면매트 온수와 숙면매트 카본으로 출시했다. 숙면매트 온수는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를 더욱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대위진 물이 매트 안을 순환하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고 포근한 온열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기업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저금리 대출 ‘상생플러스펀드’ 운영

공영홈쇼핑이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인 ‘상생플러스펀드’를 운영한다.

1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전날 서울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기업은행과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플러스(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플러스펀드’는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협력사 금융지원을 위해 조성한 ‘상생펀드’를 기반으로 감면 금리를 높이고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추가해 실효성을 강화한 제도다.

공공기관이 직접 재원을 출연해 은행, 보증기관 등 3자 협력을 통해 보증까지 제공하는 대출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공영홈쇼핑 협력기업은 300억원 규모의 ‘상생플러스펀드’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해 금융대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보증제도’도 신설했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 등 최대 1.2%의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김정은 만남 푸틴 “북한 인공위성 개발 돕겠다”
/사진 뉴시스
▲아이폰15에도 애플 주가 전일 대비 1.7% ↓

▲日정부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中 불법과외 적발시 최대 1800만원 벌금



▲日기시다, 대규모 개각 단행… 외무상 등 각료 13명 교체
▲리비아 홍수 사망자 5300명 넘어… 실종자 1만명
/사진 뉴시스



이원욱 의원
“전면적 개혁·쇄신 필수”
04



Life

줄어드는 맥주시장
업계, 소주·와인 주력
L1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고삐 조인다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단계적 시행
제로에너지건축물 도입 범위 확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 도입 등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 온실가스 관리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건물온실가스 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서울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는 신축 건물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온실가스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서울시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25%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316개 업체)과 서울시 및 자치구 소유 건물(6728개소)을 대상으로 한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도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는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물은 전체 건물 1.9%(약 1만1000동)에 불과하나 건물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8.7%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 이전 건물의 단열 성능은 2017년 이후 지어진 건물의 20% 수준에 불과해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건물이 8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서울시 소유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시

건축물(ZEB) 의무화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 도입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도입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사업면적 9만~30만㎡ 정비사업, 연면적 10만㎡ 이상인 초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ZEB 5등급(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비주거는 연면적 10만㎡~3000㎡ 이상, 주거는 1000세대~30세대 이상인 중·대형건물의 설계를 ZEB 수준(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으로 강화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도입한다.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과 3000㎡ 이상 상업

건물을 포함 약 1만2700동을 대상으로 건물 현황과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등을 신고·공개하는 내용이다.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건물 유형별 표준 배출량을 설정해 건물별로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2050년까지 12개 유형별 표준배출기준 대비 87%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전체 건물온실가스 배출량 3000만t의 약 26%인 779만t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올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건물 1400개소와 내년 공공기관 1600곳, 2025년 1만㎡ 이상 민간건물 4000개소, 2026년 3000㎡ 이상 민간건물 5700곳으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적용 범위를 차츰 넓혀나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지하철 노선도, 40년 만에 ‘새단장’

위치 알기 어려운 노선도 형태 개선
8선형 도입, 2호선은 노선도 중심에

서울시는 40년 만에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을 바꾼다고 13일 밝혔다.

지하철 노선은 1980년대 4개 노선(106개 역)에서 2000년대 9개 노선(338개 역)을 거쳐 현재 23개 노선(624개 역)으로 증가했다.

시는 “노선도가 1980년대의 형태를 유지한 채 다양한 형태로 혼용돼 추가 확장 노선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디자인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위치를 알기 어려운 노선도 형태, 일반역과 잘 구분되지 않는 환승역 표기, 공항·강·바다 등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인지 부족, 구분이 어려운 노선 표현을 현 디자인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두가 읽기 쉬운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

인’(이하 개선 노선도)을 마련했다. 개선 노선도에는 ▲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8선형 도입 ▲시인성 개선을 위한 신호등 방식의 환승역 표기 ▲위치 이해도를 높이는 지리 정보 표시 ▲노선 간 구분이 쉬운 색상과 패턴이 적용됐다.

우선 시는 국제 표준인 8선형(수평·수직·45° 등 대각선과 직선만 허용해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도식화 지도의 표준)을 도입하고 원형 형태인 2호선 순환선을 노선도 중심에 두기로 했다. 지리적 정보를 고려한 노선 적용을 통해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환승역 표기 방식은 신호등 형태로 바꾼다. 사용자가 쉽게 목적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환승되는 노선의 색상을 나열하고 연결 고리 형식으로 표현했다. /김현정 기자

성남시승격 50주년 기념 50가지 행사 마련

9~11월, 시민의 날 행사 등 기념사업

성남시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의 날(10월 8일)을 중심으로 9~11월을 기념사업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 50년, 50가지 빛깔의 가을 성남’을 기치로 내건 시민참여 행사 등 50개 기념사업을 마련했다.

주요 행사 일정은 ▲제50주년 성남 시민의 날 행사(10월 7일~8일 시청 광장) ▲2023 성남 페스티벌(10월 65일~9일 탄천) ▲청소년 창의 과학 축제(9월 23일 시청 광장) ▲성남 50년 기록 전시(9월 26일~10월 9일 시청 로비) ▲드론 라이트 쇼& 매직 페스티벌(10월

5일 탄천, 10월 9일 성남종합운동장) ▲어린이글짓기·그림대회(10월 7일 시청 너른못) ▲성남 시민 체육·문화 대축제(10월 14일 성남종합운동장) ▲시민건강 박람회(10월 15일 물동공원) ▲KBS 열린음악회(10월 17일 분당구청 잔디광장) ▲반려동물 페스티벌(10월 21일 시청 광장) ▲파크콘서트(8월 19일~10월 7일 매주 토요일, 중앙공원) 등이다.

이 중 ‘제50주년 성남시민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 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기념식을 한 뒤 7일과 8일 양일간 시청 광장에서 4차산업 체험존, 가족벼룩시장, 시민참여존 등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교사 1인당 학생 수 많고, 초임 연봉은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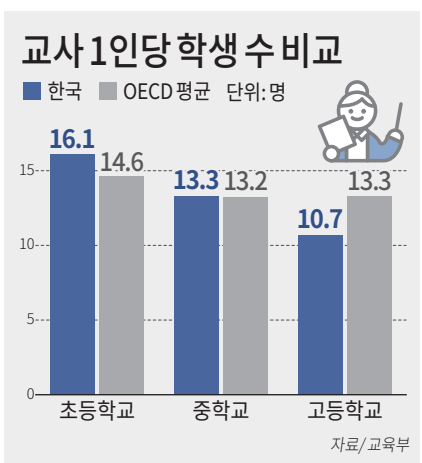
교육부, OECD 교육지표 분석
급여, 15년차 지나야 평균보다 높아져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67.5% 수준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초임 임금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3’ 분석 결과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2021년 기준)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교육지표 평균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이다. 2년 전에 비해 0.5명 줄었지만, OECD 교육지표 평균 14.6보다 2명 이상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중학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3.3명으로 OECD 평균(13.2명)을 웃돌았다.

다만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어 일반계 고등



학교는 11.3명(OECD 평균 13.6명), 직업계 고등학교는 8.5명(OECD 평균 15명)이다.

국·공립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고, 15년차가 지나서야 OECD 평균보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한 국·공립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한화로 3346만원(PPP 달러당 995.28원)이다. OECD 교육지표 평

균은 3620만원으로 10%가량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중·고교는 3352만원으로, OECD 교육지표 평균 중학교 3745만원, 고등학교 3909만원보다 낮았다.

반면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주요 국가 평균을 상회했다. 한국 초등학교 교사 급여는 5907만원, 중·고교는 5913만원으로 최고 약 20%를 더 받고 있다.

2020년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113달러로 전년과 견줘 2%(294달러) 늘었다. OECD 평균인 1만2647달러보다도 높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278달러, 중등은 1만7038달러로 초등 1만658달러, 중등 1만1942달러를 나타낸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2225달러로 2019년보다 8%(938달러) 증가했음에도 OECD 평균(1만8105달러)의 67.5%에 불과했다. /이현진 기자 lhj@



▲문체부,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학생 선수 육성
▲클린스만호, 사우디 꺾고 ‘첫 승’…조규성 결승골
/사진 뉴시스

▲황희찬, 사우디전 선발 복귀…김민재 짝은 정승헌
▲올드머니룩 인기로 프리미엄 브랜드 거래액 ‘역대 최대’



▲문체부, 내년 문화예술 예산 2조 2704억원
▲BTS RM 후원으로 복원한 ‘활옷’ 공개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구의 푸른 미래, LG의 클린테크로 켜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